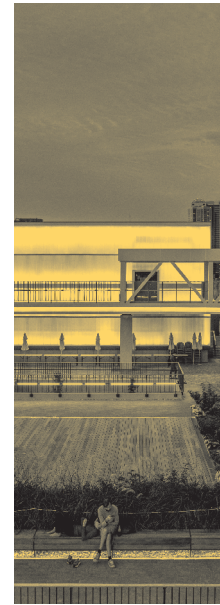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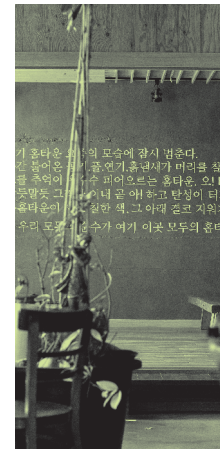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2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2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TEL 044-200-2906 | FAX 044-862-2172 | www.opm.go.kr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2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Contents 목차



005 **발간사**
주민의 창의적 역량과 노력으로 만드는 생활SOC!

006 **들어가며**

008 **PART 01**
주민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만들어낸 지역의 변화

010 **CASE 01**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016 **CASE 02**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와 마을극장 나무

022 **CASE 03** | 마을문화카페 산책

026 **CASE 04** |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032 **CASE 05** | 산외면 문화센터

036 **CASE 06** | 추부복합문화센터

042 **CASE 07** | 예주생활관



048 **PART 02**
주민공동체를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기치게!

050 **CASE 08** | 송악마을공간 해유

056 **CASE 09** | 통도아트센터

062 **CASE 10** | 회현 사랑채·감나무집·계단집 외

068 **CASE 11** |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074 **특별사례 – 시민자산화**
CASE 12 | 반송 느티나무도서관

078 **2020년 생활SOC 우수사례**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생활SOC!

080 **CASE 13**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

082 **CASE 14** |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083 **CASE 15** | 넷제로(Net Zero) SOC 에너지마루

084 **CASE 16** | 미로센터

085 **CASE 17** | 거제청년센터 이룸

086 **CASE 18** |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087 **CASE 19**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발간사

주민의 창의적 역량과 노력으로 만드는 생활SOC!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참여 선도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에는 생활SOC 시설의 기획·설계·운영 각 단계에 지역주민이 함께한 소중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헌신적 노력을 가감없이 담아내어 이정표를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눈길에서는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정표가 됩니다. 여기 사례집에 소개된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공이 좋은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골목정원으로 지역공동체를 살린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농촌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킨 '추부복합문화센터', 폐교를 마을배움터로 변화시킨 '예주생활관' 등 성공적 사례의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있었습니다.

생활SOC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주인공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때 생활SOC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삶의 질(質)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례집이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자에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국무조정실장(생활SOC추진단장)

구윤철



생활SOC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역공동체의 거점이다.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바라는' 생활SOC가 성공적으로 기획,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편 사례집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12건의 사례는 전문가와 협업하여 발굴한 대상에 대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추부복합문화센터', '산외면문화센터', '예주생활관' 등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행정에 문을 두드려 시설이 설립되고 주민조직이 직접 운영하여 배후지역 주민들까지 흡수하게 된 사례들이다.

마을문화카페 '산책'은 지역의 풀뿌리조직이 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가 유휴공간에 대해 조직과 공간협약을 맺고 무상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송악마을공간 '해유', '회현사랑채', '통도아트센터',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등은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회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시설 운영을 맡은 사례들이다.

'반송 느티나무도서관'은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주민 모금을 통해 조성되어, 사립이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시민자산화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영의 주체가 처음 모금 운동을 전개한 1세대로부터 지역사회 20~30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들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시설 기획 단계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풀뿌리조직을 비롯한 주민조직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운영에 있어 민·관뿐만 아니라 민·민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례가 특정 지역의 성공사례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생활SOC시설로 폭넓게

전파·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집이 지방행정 담당자와 시설 운영주체가 생활SOC를 기획·설계·운영하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표〉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12건)

	시설명	주요 특징
주민참여	추부복합문화센터 (충남 금산군)	○ 농촌거점형으로 활용되는 예술특화 생활SOC ○ 주민들이 부지 선정 및 공간활용, 설계 등에 참여
	노들섬복합문화공간 (서울시)	○ 시민들이 '先 운영 後 건축' 방안 결정, 민·민 거버넌스로 운영 ○ 공고를 통해 모집된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와 마을극장 나무 (인천시 서구)	○ 청소년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여 만든 청소년 복합공간 ○ 민간자산 건물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활용, 부지 매입이 어려운 도심지형 생활SOC 운영의 다양화 사례
	마을문화카페 '산책' (서울시 성동구)	○ 지역 풀뿌리 단체가 행정과 공간협약으로 자립 운영 ○ 회원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운영자로 전환되는 지역 주민 순환구조로 운영
	산외면 문화센터 (경남 밀양시)	○ 생활SOC 건립 과정과 이용이 귀촌·귀농인과 원주민 간 이질감 해소에 기여 ○ 배후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 등 지역 거점형 문화시설로 활용
	예주생활관 (경북 영덕군)	○ 폐교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로 자리매김 ○ 향교 등 지역문화자산 등 주변환경 및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사회적 경제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부산시 영도구)	○ 생활SOC 속 마을 비즈니스 모델 ○ 마을자산을 소유한 마을회가 행정과 협약을 맺고 민관협력으로 생활SOC 운영
	송악마을공간 '해유' (충남 아산시)	○ 지역 의제 발굴을 통해 마련된 생활SOC ○ 시설 운영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 발굴 및 지역관계망 구축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회현사랑채 (서울시 중구)	○ 동(洞)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앵커시설 ○ 주민들이 설립한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CRC)이 시설 운영
	통도아트센터 (경남 양산시)	○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설립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도·농 복합적인 성격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설 활용방안 마련, 행정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
시민 자산화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대구시 서구)	○ 주민주도로 어두운 골목을 밝힌 복합문화공간 ○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 및 인구증가 등 실질적 지역 활성화 성과
	반송 느티나무도서관 (부산시 해운대구)	○ 지역 모금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시민자산을 생활SOC로 운영 ○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지역연계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을 통한 운영



주민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만들어낸 지역의 변화



PART 01 주민참여형 생활SOC

- 01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 02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노루
- 03 마을문화카페 산책
- 04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 05 산외면 문화센터
- 06 추부복합문화센터
- 07 예주생활관

CASE 1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민 참여로 깨어난, 모두를 위한 '문화의 섬'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45
- 규모 | 지상 3층
 - ▶ 대지 119,854㎡, 건물 9,747.11㎡
- 사업기간 | 2012~2019.11.30.(2019.9. 개관)
- 총사업비 | 583억(시비)
- 운영비 | 67억 2,000만원(3년, 시비)
- 시설소유 | 서울시
- 운영주체 | ㈜어반트랜스포머, 플렉스&Co.
- 연락처 | 02-749-4500(임동선 실장)



키워드
시민참여 거점시설, 문화공간 플랫폼



공모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위 **128** 회 소위원회 **7** 회



아이디어 공모 참가자수
47 명



월 평균 이용자수(2020년 기준)
46,000 명



사진제공: 노들섬(greenbee studio)

주민참여 선도사례



(왼쪽부터) 신원규 플렉스&Co. 대표, 정우진 PD, 김정빈 교수, 하광수 주무관, 임동선 어반트랜스포머 실장

노들섬은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흑석동을 연결하는 한강대교 중간에 걸쳐 있는 섬이다. 일제 강점기에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1967년 한강개발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서울 시민들이 놀러 나와 여유와 심을 즐기는 곳이었다. 홍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제방도로를 쌓는 한강개발계획이 실시되며 부지는 1만 평에서 4만 5,000평으로 확대되었지만, 매립에 백사장 모래를 사용하면서 노들섬은 지금처럼 섬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노들섬을 매입하여 복합시설로 조성하려는 시도는 2005년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설계비 과다 요구로 계획이 무산되었고, 2008년 노들섬에 약 6,000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려던 한강예술지 조성사업 역시 지나친 사업비 규모로 인한 논란으로 좌초되었다. 이후 이 섬은 텅밭으로 임시 활용되어 왔다.

시민대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운영주체 선정 후 시설조성'이라는 조성 원칙 수립

그러나 이후로도 공적 공간으로서 노들섬의 가치를 생각하여 노들섬을 활용하자는 의견은 계속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며 교통문제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노들섬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표류해온 노들섬 개발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총 6회의 노들섬 포럼 운영, 시민대토론회, 노들섬 사진 공모전(4회), 학생 디자인캠프, 시민 아이디어

어 공모, 온라인 시민투표, 전문가 아이디어 스케치 등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들섬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노들섬의 조성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의 가치로 수렴되었다. 첫째는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함께 가꾸고 즐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방식으로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대원칙 아래 2015년부터 총 3차에 이르는 노들섬 공모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거대한 공공건축은 시설을 조성한 후 운영자를 뽑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이 조성되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노들섬 공모는 콘텐츠, 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세워 조성하자는 것이었죠.”(하광수 서울시 공공재생과 주무관)

‘선(先) 운영계획 후(後) 시설조성’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로 함에 따라 1차 공모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축·조경·도시 등 모든 분야의 개인 및 단체(국내외 제한 없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했다. 1차 공모에서 현 운영주체 중 하나인 ‘어반트랜스포머’를 비롯한 총 10개 팀이 당선되었고, 해당 팀들은 2차 공모에서 운영계획과 수익성,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과 운영주체까지 포함한 상세한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경합을 벌였다. 어반트랜스포머는 미디어, 음악 등 35개 회사들을 찾아 다닌 끝에 총 8개 팀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라는 내용을 담은 ‘밴드 오브 노들’로 공모에 참여, 2015년 9월 최종 당선자로 뽑혔다.

어반트랜스포머는 서울시립대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공모가 나오기 3년 전부터 노들섬을 위시한 서울의 버려진 공간들의 가치를 찾는 리서치를 해왔던 팀이었다. 1차 공모가 모두에게 오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어반트랜스포머를 이끌며 총감독 역할을 한 김정민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말마따나 “경험도 없고 이처럼 작은 규모의 팀에게까지 기회가 왔을지는 미지수”였을 것이다.

이후 3차 설계 공모전도 진행되었지만, 이들은 바로 노들섬의 운영주체가 되지 못했다. 공모전을 전후로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에 제동이 걸렸고, 담당 공무원이 백방

으로 뛰어다녔지만 “공모전이라는 형식이 입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결국 경쟁입찰을 다시 치렀다. 그리고 2018년 6월에서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김정빈 교수는 “선 운영 후 조성의 원칙”은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거기에 수반하는 행정 프로세스는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운영사무국을 꾸리고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9년 9월, 노들섬 복합문화기지는 드디어 개장할 수 있었다.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공간 플랫폼

‘밴드 오브 노들’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들섬의 테마는 음악이다. 그리고 이런 ‘음악섬’이란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설은 1층의 라이브하우스(500석)다. 흔히 외국에서 말하는 라이브하우스란 클럽(150~200석)과 전문 공연장(1,000석 이상)의 중간쯤 되는 공연장이다. 노들섬 운영사무국 공연사업부문의 신원규 감독(플렉스앤코)은 “대중 음악계에서는 500석 정도의 중규모 공연장이 갖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하면 그 뮤지션은 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음반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장하는 뮤지션에게 꼭 필요한 공연장인 거죠. 많은 공공시설의 공연장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다목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도리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진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음악이라는 분명한 방향성과 성장하는 뮤지션에게 도움이 된다는 목적 아래 조성했기 때문에 기본 장비와 조명 세팅도 밴드들이 악기를 가져와 플러그인하면 바로 음악을 시연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용도도 대중음악(뮤지컬의 갈라쇼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다. 노들섬 전체는 클래식, 뮤지컬, 무용극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 전반에 열려 있지만, 라이브하우스만은 예외란 얘기가.

그러나 라이브하우스를 빼고 보면 노들섬에서 ‘음악 특화 공간’은 찾기 힘들다. “음악섬이라면서 왜 이곳에는 음반숍도 없고, 음악서점도 없느냐?”는 질문이 종종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해 정우진 플렉스앤코 PD는 “모든 공간에 음악을 갖다 붙이는 억지스러움 대신에 음악을 매개로 다른 문화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음악은 미술, 디자인, 출판, 요리 등 어떤 장르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운영사무국은 그런 음악의 본질과 ‘공간 플랫폼’으로서의 노들섬이 부합한다고 보았다. “공간이 있지만 공간으로서만은 의미가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야 공간이 비로소 특정되고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플랫폼이니까요. 노들섬이라는 이 복합문화기지를 공간 플랫폼으로 보고, 해당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획자 역할을 할 시민 생산자들을 이곳에 모으기로 했어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게 되니까요.”(김정빈 교수)

그렇게 책, 식물, 미술, 음악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시민 생산자들이 노들섬으로 초대됐다.

창조적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노들섬 프로그램

시민 생산자들을 노들섬이란 공간 플랫폼에 모이게 하는 대



500석 규모의 라이브하우스와 공연장 내부



노들서가

“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공간이 비로소 특정되고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노들섬을 공간 플랫폼으로 보고, 해당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획자 역할을 할 시민 생산자들을 이곳에 모으기로 했어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게 되니까요.

김정빈 어반트랜스포머 총감독,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표적 방식은 ‘노들서가’에서 찾을 수 있다. 1, 2층의 약 230평 공간의 서점 노들서가는 일반적인 서점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곳에는 ‘책 생산자’인 15개 독립출판사와 3개의 독립책방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각자 매대를 구성하고, 운영사무국이 분기별로 테마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자사의 책을 큐레이션하여 소개한다. 그동안 ‘처음’, ‘과정’이란 주제를 거쳐 현재는 ‘복케(책을 통해 찾는 새로운 나)’라는 주제로 매대를 꾸렸다. 어마어마한 공간에 책을 매입하여 서점을 조성했다면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었겠지만, 독립출판사라는 책 생산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슬기롭게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다.

“저흰 위탁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아요. 대신 출판사들에게 공간이 나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콘서트나 작가와의 대화 같은 행사를 한 달에 3~4회 정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해당 행사와 다른 콘텐츠와의 연결과 홍보는 저희가 또 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임동선 어반트랜스포머 팀장)

노들서가 2층에는 작가 집필실이 있다. 카카오 브런치 작가들과 콜라보하여 3개월 동안 집필실을 쓰게 했는데, 자릿세를 받는 대신 글세를 요청했다. 작가가 좋아하는 책의 글귀나 좋은 문장 등을 적은 종이를 ‘글세’로 받아 전시도 진행하며 ‘쓰는 이, 읽는 이, 만드는 이, 파는 이의 마음이 담긴 노들

서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었다.

노들섬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섬데이'도 주목할 만하다.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 해보자'는 기획 의도 아래 가드닝, 드로잉, 뜨개질, 요가,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테마로 진행 중이다. 아마추어나 일반 시민들도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누구든 이곳에서 섬데이 수업을 만들 수 있다. "내가 ○○○ 수업을 하고 싶은데, 격주 1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운영사무국에 요청을 하면, 횟수와 내용을 조율하여 월별 시간표를 만들어준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춰 스페이스445, 아트숍, 노들서가, 뮤직 라운지, 노들섬 야외 등 장소도 달라진다. 시민이 노들섬이라는 공간 플랫폼에서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페이스445에서는 '두아트클럽'도 진행하고 있다. 노들섬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상주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아트숍, 아트오피스, 갤러리, 아티스트 멤버십 공간



사진제공:노들섬(조승원)



아트스페이스445



노들서가

라이브하우스, 노들서가, 스페이스445 등 노들섬의 공간들은 시민 및 문화 생산자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노들섬(조승원)

등을 제공하여 굿즈 판매, 협력전시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1기 두아트클럽 상주작가인 일러스트레이터 Azure pup studio는 이곳의 장점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 결이 잘 맞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려 있다고 꼽는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하나씩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곳에서 충분히 맘에 맞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작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작가는 물론 독자, 출판사 등을 한곳에서 만나 상호 소통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진제공:노들섬(LUN LEE PHOTOS)

서울 시민들의 삶에 활력과 문화적 영감을 주는 공간

작년 오픈 후 하반기에만 월 평균 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던 노들섬이지만,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었다. 2월부터 휴관이 결정되면서, 오픈일보다 휴관일이 더 많은 1년을 보낸 것이다. 다행히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들섬은 다시 깨어나고 있다. 수지, 남주혁 주연의 드라마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올로케 촬영되고 있으며,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다시 늘고 있다. 노들섬도 개장 1주년을 맞이하여 각 공간에서 낮에는 워크숍을 즐기고, 밤에는 공연을 보는 '반려생활 반려음악'을 비롯해, 공유주방에서 진행되는 팝업 키친 '모월모일'까지 그동안 준비해온 프로그램들을 조심스레 선보이고 있다.

하광수 주무관은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개장 후 첫해라는 귀중한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버려 아쉽다"면서도 노들섬의 미래에 대해 낙관을 보였다. "큰 공공시설이 조성되면 처음 4~5년은 혹독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실제로 시설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점차 보완할 것이 줄어들면 해당 시설이 자리잡게 되죠. DDP도 청계천도 그랬듯이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문화공간으로서 노들섬도 잘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CASE 2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 마을극장 나무

한 지붕 아래 두 공간, 마을 안에서 세대를 연결하다

Specification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72
- 규모 | 지상 3층 ▶ 사용 공간 2층(192㎡), 3층(192㎡)
- 사업기간(개관) | ▶ 느루(3층) 2011.3. ▶ 나무(2층) 2019.12.
- 총사업비 | ▶ 느루 1억 2,000만원(지역 모금)
▶ 나무 약 1억 600만원(국비 50% <국토교통부 '2018년도 소규모 재생사업'>, 시비 25%, 구비 25%)
- 운영비 | ▶ 느루 연 2,400만원(주민후원)
▶ 나무 연 1,980만원(2020년, 구비 일부)
- 시설소유 | 민간건물 임대 ➤ 운영주체 | 마을n사람(비영리단체)
- 연락처 | 032-576-0106(권순정 대표)

- 키워드
소규모 도시재생, 청소년 문화공간, 마을극장
- 마을극장 나무 연평균 이용객
1,825명
- 느루 청소년 프로그램
8~10개
- 후원기관 및 단체
27곳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

민·민 거버넌스로 해결한 지역의 문제

인천시 서구 가좌4동에는 한 건물에 8년의 시간차를 두고 개소한 생활SOC 두 곳이 있다. 첫 번째로 문을 연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자 토론, 영화감상, 세미나 등이 열리는 문화공간이다. 느루 바로 아래층에는 마을극장 '나무'가 있다. 주민들이 춤, 연극, 노래 등 공연예술 분야를 연습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형성된 배경도 과정도 각각 다르지만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두 공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2011년 개소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는 상가가 밀집한 건물 3층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주민들에겐 잘 알려진 장소다. 느루가 생기기 전까지 이 지역에는 청소년이 갈 만한 문화공간이 한 곳도 없었다. 인근에만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이 있을 정도의 학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05년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던 지역활동가들이 "마을에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의기투합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만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당시 센터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이어서 청소년이 올 곳은 못 됐거든요."(권순정 마을n사람 대표)

도서관 봉사자, 가좌동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등 총 8명의 지역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청소년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인근 6개 학교 청소년 1,2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청소년이 원하는 공



중학교 3학년 때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연락처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직 공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부터 마을 어른들과 함께 공간을 찾고, 공간 설계부터 프로그램 기획까지 참여했습니다.



최윤석 청년

간은 무엇인지, 공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보았다. 특히 '청소년 공간을 만들 때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96명의 학생이 남긴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그중 응답한 20명의 학생들이 제1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어 주민들과 함께 청소년 공간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설문조사에 저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 공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마을 어른들과 함께 공간을 찾고, 공간 설계부터 프로그램 기획까지 참여했습니다."(최윤석 청년)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로탐구였다. 편하게 와서 책을 읽고, 음악도 듣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원했다.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려면 꽤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새 건물을 짓는 건 무리지만 공간 임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지역활동가들은 2008년 비영리단체 마을n사람을 설립하고,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을 모아 기부금 후원을 받았다. 그렇게 주민들의 정성으로 모은 총 3,500만 원으로 만든 공간이 바로 느루다.

주민이 주인인 공간, 다음 단계를 꿈꾸다

느루는 100% 주민 주도로 운영된다. 운영주체는 마을n사람이다. 임대료와 운영비는 100% 주민 후원비로 충당한다. 후원자는 주민 개인, 마을 단체, 기업 등 다양하다.

"옆집 사는 친한 이웃이 느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

으로 마을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던 차에 저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최용문 가좌동 주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이사)

오직 주민들만의 힘으로 만들어 운영되는 공간. 느루의 취지에 공감한 새로운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현재 개인 후원자 100명, 후원 기업 및 단체만 27곳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 마을기업 ‘사람사이’도 설립했다. 느루 옆 공간인 ‘사람사이 카페’를 마을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를 열거나 중·고등학교에서 강좌도 진행한다.

느루의 운영방식은 자유롭다. 느루의 운영위원은 마을n사람, 함께 키우는 장학위원회, 주민자원봉사자,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뉘는데 어른, 청소년 나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마을n사람은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청소년이 동네를 다시 들여다보고, 새롭게 보는 ‘우리동네 문화복덕방’ 프로그램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을 열기도 한다. 그 결과 화요일은 뜨개질 사람책, 수요일은 악기 연주, 목요일은 진로찾기 프로그램, 금요일은 영화 감상, 토요일은 심N식당 등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활동이 다양하다 보니 느루는 점차 ‘도서관’보다 복합문화공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해갔다. 점점 공간이 좁아지면서 도서관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졌다.

지역 문제가 된 문화 격차, 문화 소외를 고민하다

느루 이용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던 2015년, 가좌4동에 두산 위브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1,750세대 규모의 단지가 생기면서 한 동네에서 생활격차가 벌어졌다. 아파트가 생긴 동네에는 운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등이 들어섰는데 바로 옆 동네, 즉 느루 주변의 지역에는 주민 공동시설은 차치하고 주민이 모임 공간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낡은 연립주택과 빛바랜 건물만 밀집한 이곳에



서 주민들은 그 무엇보다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이런 마을의 욕구를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였다. 센터는 널찍한 문화공간에 대한 가좌4동 주민들의 욕구를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왼쪽부터) 배정아 사무국장, 이부중 회장, 이혜경 센터장, 최용문 이사, 최윤석 청년, 정성연 청년, 권순정 대표, 이승현 주무관

(2017년부터 시행된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와 행안부가 협력하여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전 작은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마을n사람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마을n사람은 주민 워크숍을 열어 해당 사업에 도전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가좌4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지역 내 문화공간 대표, 지역활동가들이 모였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마을공동체들이 한곳에 모인 것이다. “가좌4동에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새벽지역아동센터, 도예공방 아바노스, 주민자치장학위원회, 콘체르트아트하우스, 새마을 부녀회, 통우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권순정 대표) 논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18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의 뜻이 올랐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마을극장 나무’다.



마을극장 나무의 밴드 연습실

청소년, 청년, 마을 어른 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을 구성하다

느루가 민·민 거버넌스를 통해 오로지 민간의 힘으로 공간을 구성했다면, 마을극장 나무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사업결정 워크숍에 모인 주민들은 지역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주민협의체와 센터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를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2018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사업의 일환인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때 이미 느루를 만들어본 주민들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때도 느루의 방식을 적용했다. 주민들과 의견 수렴워크숍, 비전워크숍을 열어 주민이 원하는 마을, 마을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공론장을 펼쳤다. 그 결과 청소년, 청년, 마을 어른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의견을 마음껏 펼치고,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난 지역의 청년들과 그들의 커뮤니티인 청년기획단은 이후 소규모도시재생사업에서 크리스마스 나눔축제, 청년강연회 등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체적으로 마을활동에 적극 참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가 주민들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직접 만든 경우라면, 마을극장 나무는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민 공론장을 열고 행정의 지원을 통해 조성한 경우다



느루는 주민기금으로 운영하지만 마을극장까지 기금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와 여러 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먼저 5년간 공간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셨어요. 공간운영, 수익사업 등 주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죠.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여하였다. 주민들은 공간워크숍을 열어 직접 원하는 공간도 상상했다. 경기대학교 이영범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주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걸 도왔다. 공간은 느루가 있는 건물 2층으로 선정했다. 오랫동안 청소년 공간으로 운영된 느루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완성된 공간은 춤, 연극, 공연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펼칠 수 있는 넓은 홀과 밴드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 사무공간, 창고로 구성되었다. '가재울 주민발전소' 대신 마을극장 나무라는 이름도 붙였다. '나만의 무대'의 줄임말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민들이 함께 만든 이름이다.

민관 거버넌스로 공간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아내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주민의견수렴워크숍, 공간워크숍 등에서 강사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했다. 또 공간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도 함께 했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으나 과정이 쉽지 않았다. “느루는 주민기금으로 운영하지만 마을극장까지 기금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와 여러 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이혜경 인천시 마을만들기 센터장)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가 대안을 마련했다. 서구청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이곳에 입주하는 것을 제안하며,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센터와 마을극장이 한 공간에 있어 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마을극장 운영비도 더불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청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공적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소규모재생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 임대료와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는 당장에 주민들이 공간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동시에 하기엔 힘든 점이 많다고 판단해 행정력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받기 위해 시를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의 역할이 컸다. “가좌4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마을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라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간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펼치는 일은 처음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민이 잘할 수 있는 걸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고민했는데, 그것이 임대료와 운영비 지원이었어요.”(전진우 인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을극장은 서구청으로부터 5년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주체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공간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권순정 마을n사람 대표



“우리동네 문화복덕방”은 마을n사람이 진행하는 청소년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간 공공무상임대 형식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임대료와 운영비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마을극장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도 받고 있다. 주민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마을극장 개관과 함께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다른 공동체공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마을극장의 과제는 지속성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거점공간 지속화방안 워크숍을 열었다. 이혜경 마을센터장, 서구청 전진우 팀장, 마을n사람 권순정 대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마을 문화교육단체 및 건축가, 마을활동가 등 분야별 마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극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방법을 논의했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기간은 주민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다양한 실험으로 경험을 축적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료대관을 실시하거나 유료 프로그램 운영, 회원제 또는 후원자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이혜경 센터장)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주체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공간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권순정 대표)

섬막한 주민들의 일상에 활기를 주는 마을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무는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주민들은 없다. 이미 느루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봤기 때문이다. 끈끈한 지역 네트워크와 든든한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행정과의 따뜻한 신뢰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마을극장 나무 내 카페 사람사이

CASE 3

마을문화카페 산책

민간단체의 역량과 행정의 신뢰가 만나
주민을 위한 공간을 꽃피우다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매봉18길 11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 대지 290㎡, 건물 101.49㎡
- **사업기간** | 2016년 개관
- **총사업비** | 4억 1,200만원
 - ▶ 국비 1억 2,000만원(안행부, '2014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 시비 6,000만원
 - ▶ 구비 1억 3,700만원
 - ▶ 민간 9,500만원('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KB 국민은행 후원)
- **운영비** | 연간 약 1억 2,000만원(자체 조달) ➤ **시설소유** | 성동구
- **운영주체** |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비영리단체)
- **연락처** | 02-2297-5935(우미선 대표)

-  키워드
지역 풀뿌리조직, 마을학교, 공간협약
-  책임책아 회원
265명
-  주민 동아리
10여개
-  시설 설립 이후 지역 책문화 축제 집행 건수
20회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쪽 늘어선 아파트,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숲 사이에 진짜 숲속 공원이 있다. 금호산 응봉근린공원은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응봉근린공원에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책 놀이터인 '마을문화카페 산책'이 있다. 숲속 오두막 같은 외관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지만, 사실 이곳은 재개발로 인해 폐쇄되었던 유휴공간이었다. 이런 공간을 주민들의 공간, 마을문화카페 산책으로 변신시킨 배경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역의 풀뿌리조직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가 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공공의 생활SOC가 되기까지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이하 책엄책아) 전신은 같은 이름의 어린이작은도서관이다. 2001년 성동구 행당동에 문을 연 책엄책아는 '아이들과 엄마가 걸어 다닐 만한 곳에 책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지금은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추세이지만 책엄책아가 생길 당시만 해도 서점이나 독서실의 형태가 아닌 도서관이, 그것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우미선 책엄책아 대표는 "당시에 어린이도서관이란 큰 도서관 한쪽 서가를 차지하고,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책엄책아가 생각한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가를 설치해 아이들 스스로 책을 꺼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닥에 툇글 면서 책을 읽고, 소리 내어 읽어도 뭐랄 사람이 없는 도서관이었다. 그런 곳이었기에 책엄책아는 때론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책엄책아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앞세워 삼삼오오 모인 엄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이 형성되었다. 아이들의 나이별 모임부터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의 모임, 그림책 속 주인공을 인형으로 만드는 모임까지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동아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졌고 운영되었다. 그렇게 모인 엄마들이 힘을 모아 마을축제를 열고,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고, 그림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들이 2001년 10월에 시작하여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축제 '나랑 같이 놀자'는 성동구를 대표하

엄마들이 만든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행정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의 문화복지가 가능한 마을학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로, 차근차근 진화해갔다

는 마을축제로 성장했다. "도서관이 개관한 첫해,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지역 이웃들과 나누는 책문화 축제를 열었어요. 우리끼리 모여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우미선 책엄책아 대표) 나랑 같이 놀자 외에 여름 캠프, 도서관 캠프 등 책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성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도 펼쳤다. 마을 책놀이 활동기를 양성해 성동구 및 중구 등 인근 초등학교에 파견해 책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렇게 성동구에서 15년 동안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책엄책아에게 위기가 닥쳤다. 도서관이 있던 곳의 건물주가 부도가 나,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관의 위기 앞에 책엄책아를 지키기 위해 지역 사회와 주민이 나섰다. 금호동, 옥수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책엄책아 살리기 운동이 펼쳐졌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시와 성동구에 탄원서를 보냈고, 금호동, 옥수동 주민들의 모임 '금옥마을주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우미선 대표는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도서관은 폐관됐거나 다른 구로 이전됐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근 지역의 제안도 있었다. 책엄책아가 성동구를 떠나지 않고 자리잡은 데에는 이런 주민들의 노력이 컸다. 성동구 역시 이러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섰다. 배은화(성동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팀장) 씨는 "성동구의 자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공간이 없어지거나 다른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습



1층 어린이도서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수만은 없었다. 재개관을 위해 성동구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간을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책아와 공간 협약을 체결했다.

오래 방치된 공간인 만큼 리모델링이 필수였다. 책임책아와 주민들, 그리고 성동구가 합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2014 희망마을공모사업’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2015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응모해 각각 1억 2,000만원, 9,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거기에 시비 6,000만원, 구비 1억 3,700만원이 더해져 리모델링을 마친 후 마을문화카페 산책은 2016년 4월 개관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완성된 마을문화카페 산책은 1층 어린이도서관, 2층 마을문화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2층은 북카페 겸 주민들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 동아리, 강연, 주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공간을 조성한

바탕에는 없어질 뻔한 도서관의 재개관에 힘을 보태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전에는 우리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재개관하면서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준 공간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우미선 대표)

마을학교 교장이자 책임책아 사무국장인 함정희 씨는 “문을 열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인근 강남 쪽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가던 주민들이 이제는 이곳으로 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여 인문강좌나 생태환경 교육은 물론 주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생태환경과 예술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고 엄마가 선생님이 되다’, ‘우리, 마을문화 기획자에 도전하다’, ‘우리마을 상담소’, ‘책 읽는 어른, 책 읽

는 마을’, ‘새롭게 다시 만나 나랑 같이 놀자’, ‘마을 숲 생태공방에서 이웃만들기’, ‘마을 숲은 우리의 정원’, ‘마을 작은 산 큰 꿈을 그리다’, ‘씨앗에게 희망을, 사람에게 마음을’, ‘숲속 도서관 마을학교가 되다’, ‘서울숲에서 버티고개 넘어 남산까지’, ‘화요인문학산책-날마다 하나씩 내려놓기’,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애들이 우리 연극하자’ 등의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열었다.

덕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문화카페 산책에 모일 수 있었으며 모인 주민들은 관심에 따라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독서모임, 만화 그리기 모임, 그림책 공부모임, 인문학 모임, 바느질 모임 등 운영되는 동아리만 10개 가까이 된다. 동아리 대표는 주민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마을문화카페 산책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책임책아의 10여 명 활동가가 시작한 도서관을 이용했던 엄마들이었던 것처럼, 마을문화카페

산책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 공간에서 성장하여 이 지역사회의 교육 주제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든든한 행정

마을문화카페 산책의 소유권은 성동구에 있다. 성동구와 책임책아는 공간협약을 맺고 무상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책임책아는 후원회원 265명의 후원금과 카페 운영과 책놀이 꾸러미(아이들이 책을 보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책과 관련된 부속 키트들의 모음) 제작 및 판매 등 자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의 지원금을 모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협약 방식은 지자체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책임책아는 무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단체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 양측 모두 만족스럽다고 한다. “위탁계약으로 공간을 운영했다면 현재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인건비 등은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가진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공간협약 방식이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우미선 대표)

성동구에서도 마을문화카페 산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문화카페 산책이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가지 예로 얼마 전 ‘바깥 도서관’ 활동 때에는 성동구가 빠른 일처리를 해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어려워져 공원 공간을 활용해 바깥에서 책을 읽는 활동을 기획하자 이와 관련하여 빠른 행정 처리를 해준 것이다. 배은화 팀장은 “마을문화카페 산책이 하는 일에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등 여러 부서가 조율할 일이 많은데, 산책의 일이라면 신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

넓은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풀어주는 마을문화카페 산책, 마을문화카페 산책의 모범사례 뒤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역량 있는 단체, 폐관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행정의 지원까지 많은 주체들의 노력이 있다.



(왼쪽부터) 이현경 주무관, 배은화 마을문화카페팀장, 우미선 책임책아 대표, 김선호 작은 어린이도서관 관장, 함정희 사무국장

CASE 4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튼튼한 마을공동체가 행정과 예술단체를 만났을 때

Specification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6
- **규모** | 지상 3층
 - ▶ 대지 678㎡, 건축 383㎡
- **사업 기간** | 2015~2018년(2018.3.23. 개관)
- **총사업비** | 13억 9,000만원
 - ▶ 국비 2억 5,500만원(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
 - ▶ 시비 11억 3,500만원(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사업')
- **운영비** | 연간 약 4,700만원(남항동 시설관리비 지원 500만원 포함)
- **시설 소유** | (사)대평동마을회
- **운영 주체** | (사)대평동마을회
- **연락처** | 051-418-1862(박기영 총무)

키워드
시민 자산, 문화예술, 도시재생, 마을회

대평동마을회 역사
70년

사업단 출범까지 논의 횟수
30회 이상

마을해설사 수
10여명



강강이 생활문화센터를 알리는 팸플릿

대평마을다방

강강이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대평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 마을이다. 부산항이 개항된 1876년, 어장이 풍부했던 대평동 마을에 일본인 어부들이 몰려오면서 대평동의 대풍포는 어선들의 정박지가 되었고, 대풍포를 중심으로 조선소나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1887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만들어졌고, 1937년에는 한국 최초의 철강 전문 조선소인 '조선중공업주식회사(현재 한진중공업)'가 설립되면서 호황을 맞이했다. 광복 이후 다시 침체되었지만 1970년 원양어업이 성장하면서 대평동은 선박 수리의 본거지가 되었다. 대평동이 강강이 마을로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박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기 전에 작은 망치로 선박 표면에 붙은 녹이나 조개껍데기를 벗겨내야 했는데 그때 나는 망치질 소리가 '강강'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대다수의 선박이 감천 또는 다대포 지역으로 옮겨가며 대평동의 조선 경기는 불황을 맞이했다. 바다 밑을 손보지 않아 빨이 쌓이면서 수심이 낮아져 대형 선박이 조선소로 들어올 수 없었던 까닭이다. 소형 조선소만 남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층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거주인구는 줄어들었고 지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 대평동이 '강강이 예술마을'로 변신하며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강강이 생활문화센터'가 있다.

민과 관, 예술단체가 함께 만든 공간

강강이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사찰이 있던 자리로 1950년대 대평동 일부 유지와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불하받아 소유하게 된 마을자산이다. 이 과정에서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평동마을회가 조직되었다.

마을자산이 된 부지에는 마을회관과 유치원이 건립되었으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대평동마을회는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쳤다. 복조리 장사, 일일다방 운영으로 기금을 조성해 장학금을 마련해 대평동초등학교에 기부하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했다. 대평동마을회가 처음 조직된 1950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방역과 청소는 대평동마을회 몫이었다. 이렇듯 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지만 마을은 점점 쇠퇴했고, 대평동은 남항동으로 통합돼 법정동으로만 남게 되었다. 파출소를 비롯해 병원, 약국도 하나 없는 대평동 주민들이 바라는 게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박기영 (사)대평동마을회 총무는 "강당은 커녕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카페도 없었다"며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오래된 마을회관 건물을 허물어 새로 짓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이때 한 단체가 대평동 주민들을 찾아왔다.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이하 플랜비)이었다. 플랜비는 부산시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단체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정책 연구와 컨설팅,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문화예술법인이다. 플랜비는 왜 대평동에 주목했을까.

이승욱 플랜비 대표는 "대평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적 자원에 주목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

소가 19세기 말에 생긴 곳이 바로 대평동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선박 수리,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린 곳으로 부산의 법정동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 중 하나였어요. 조선업이 대형화되면서 쇠퇴했지만, 문화적 자산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에 있는 마을 중에 드물게 마을회라는 든든한 공동체가 마을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대평동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당시 영도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영도구가 건축과에 도시재생팀을 만들어 영도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시기로서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등 사업예산 확보가 관건이었다. 홍성호 팀장은 “그 당시 영도구는 도시재생을 핵심사업으로 영도구에 새로운 발전적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재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였다고 이야기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플랜비가 영도구에 제안을 해온 것이다. “영도구 대부분의 마을이 원도심으로 쇠퇴도가 지속되고 있어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대평동은 역사가 깊고,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단합이 잘 되는 마을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랜비라는 문화예술단체의 사업공모신청 제안이 있었던 거죠. 행정의 입장에서 예술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믿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비를 중심으로 주민과 행정이 대평동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합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5년 9월 부산광역시의 예술상상마을 공모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비 35억원에 국비 2억 5,500만원을 추가하여 국·시비 총 37.5억원 규모의 강강이 예술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사업의 진행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사업단이 출범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6년 4월로 10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0개월 가까이 회의만 30번 이상 했습니다.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까지 한다면 그 수는 더 상당하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던 세 집단이 비슷한 말로 공동의 목표를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지.”(이승욱 대표)



동네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대평마을다방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드웨어적 변화가 아니었다. 사람과 콘텐츠 중심의 재생모델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물리적 변화는 최소한으로 하되, 대평동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자는 대원칙이 정해졌고 민과 관도 이에 합의했다. 그렇게 강강이 예술마을과 강강이 생활문화센터가 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담아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사랑방

2016년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몇 차례의 공사를 걸쳐 2018년 3월 13억 9,000만원 예산 규모의 강강이 생활문화센터가 개관됐다. 센터는 3층 규모로 1층에는 (사)대평동마을회가 직접 운영하는 대평마을다방과 공동체 부엌이 있으며, 2층에는 마을박물관과 마을회의실, 체력단련실이 있다.



2층에 구성되어 있는 마을박물관은 그동안 사업단과 주민들이 직접 기록하고 수집한 강강이마을의 근대 역사와 주민 생활사, 조선산업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수리조선



대평동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선박 수리,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린 곳이었어요. 조선업이 대형화되면서 쇠퇴했지만, 문화적 자산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에 있는 마을 중에 드물게 마을회라는 든든한 공동체가 마을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대평동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승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대평마을다방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인다. 또 강강이 예술마을의 기념품도 판매한다. 단순히 카페를 넘어 강연이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며 마을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 및 인근 공업사, 마을주민들이 직접 제공한 사진과 소상품 등 약 400여 점의 실물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선박수리과정, 부품 제작 등을 기록한 영상물, 사운드아티스트 전광표 작가가 채집한 마을 소리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또 강강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시화 그리기, 댄스, 자서전 쓰기, 민요 부르기, 마을신문 만들기 같은 마을동아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편, 마을정원사,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마을다방 운영하기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가사로 담아 만든 뮤지컬 ‘리라영도’ 등의 문화활동과 예술가와 주민이 음식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예술가의 밥상, 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접하는 문화사랑방 등의 프로그램도 열린다. 그 외에도 신년 떡국 나눔이나 독거노인 반찬 나눔 활동 같은 봉사활동도 공유부엌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마을 비즈니스로 자립을 꿈꾸다

강강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부지 소유권은 2018년 설립한 (사)대평동마을회가 갖고 있고, 현재 시설 사용권은 영도구청이 갖고 있다. (사)대평동마을회와 영도구청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후에는 시설도 (사)대평동마을회 소유가 된다.

강강이 생활문화센터는 노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물을 구조보강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신축으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기존 오래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관련법령 및 예산집행 시기상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최대한 현실적 여건에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건물소유자인 마을회 주민들과 사업단(플랜비 팀) 및 행정인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현재와 같은 건물이 조성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강이예술마을사업의 성공적



2층 마을박물관 전시 모습

추진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고, 이때 행정의 큰 역할을 했다.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그 당시 건축직 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홍성호 팀장)
이렇게 만들어진 강강이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역시 주민이



(왼쪽부터) 박기영 대평동마을회 총무, 이승욱 플랜비 대표, 홍성호 전 도시재생추진팀장, 이동은 현 도시재생추진팀장, 김설 영도문화도시센터 코디



마을의 문화와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강강이 마을박물관

직접 맡고 있다. 남항동에서 시설관리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영비는 (사)대평동마을회가 마련한다.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금과 대평마을다방 수익금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을해설사와 함께 하는 마을투어 프로그램 등 마을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대평마을다방은 대평동에서 유일한 카페였다고 한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건설 당시부터 주민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다. 그때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주민들 중 한 사람이 박기영 총무다. “처음 마을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무슨 마을카페냐? 회의실이나 강당이나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마을 비즈니스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네요. 또 주민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5개월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마을다방 운영하기’ 동아리를 운영하는 동시에 함께 유명 카페를 직접 찾아다니며 견학했다. 오픈 초기에는 젊은 바리스타를 매니저로 초빙하여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주민 바

리스타들은 요즘 유행하는 메뉴도 척척 개발해낼 정도로 바리스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주민들로 이뤄진 마을해설사들은 강강이 예술마을을 둘러보는 마을투어도 진행한다.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마을투어와 달리 강강이 예술마을 투어는 유람선 투어, 대평마을카페에서 음료 제공 등을 포함해 투어 비용을 받는다. 해설사로 나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투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도 마을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에는 사업단이 주도했던 마을투어도 2019년부터는 (사)대평동마을회가 직접 운영한다. 이런 마을 비즈니스를 통해 강강이 생활문화센터의 자립을 도모한다. “사업단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생활SOC 시설이 주민들에 의해 잘 운영된다는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강강이 생활문화센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이승욱 플랜비 대표)
튼튼한 마을공동체와 행정의 지원, 문화적 가치를 아는 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강강이 생활문화센터는 생활SOC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CASE 5

산외면 문화센터

배후마을 주민들까지 품은 농촌 지역거점형 문화시설

Specification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30
- **규모** | 지상 2층
 - ▶ 대지 9,741㎡, 건물 494.31㎡
- **사업기간** | 2012~2018년(2018.3. 개관)
- **총사업비** | 10억
 - ▶ 국비 7억원(농림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 도비 9,000만원
 - ▶ 시비 2억 1,000만원
- **운영비** | 연간 2,700만원(자체 조달)
- **시설 소유** | 밀양시 ➤ **운영주체** | 산외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 **연락처** | 055-352-7546(박재현 운영위원장)

- 
키워드
농촌문화거점, 1인1동아리, 재능기부
- 
운영 프로그램 수
10~18개
- 
연 평균 이용자 수
280~380명
- 
이용자 중 배후면 주민 비율
30%



주민의 문화생활과 체력 증진의 거점

빨간 벽돌로 지어진 산외면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의 첫 인상은 부지가 넓고 쾌적하다는 것이다. 2층 문화센터는 연면적 562.7㎡으로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과 다목적 광장, 27면의 주차장까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할 하러 와도 답답함이 없다.

내부는 대회의실, 음악동아리방, 정보화방,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 음악동아리방에는 보면대와 책상, 악기 보관함이 있으며, 체력단련실에는 각종 체육기구는 물론 맞은편 방에 전신마사지 기계도 있어,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했다. 그리고 서예교실, 수목화교실, 캘리그라피교실, 춤바댄스, 컴퓨터교실, 요가교실, 탁구교실, 축구동호회, 색소폰동호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많을 때는 18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정도라니, 도시의 문화센터 못지않은 규모다. 체력단련실은 월 1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 문화강좌를 수강하면 체력단련실 이용은 무료다.

“농촌마을이다 보니 주민들이 눈 뜨면 오로지 일하시고, 해가 지면 주무시는 단순한 생활을 하셨지만, 문화센터가 생긴 후로는 저녁에 짬나는 대로 오셔서 체력단련, 문화생활 등을 즐깁니다. 산외면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귀농귀촌한 베이비부머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그분들이 원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귀촌 6년차 주민인 송병열 산외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전 위원장은 “시골마을의 인구감소를 볼 때 우리 문화센터가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이곳의 족구장이나 풋살장은 멀리 삼랑진읍이나 밀양시청 풋살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 야외공간을 사용하는 이용료가 월 5만원 정도로 저렴하여, 산외면 외에도 밀양시의 5개 거점마을을 별로 주 2회씩 정해서 운동을 하고 간다. 넓은 다목적 광장에서는 지역의 건강단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야간 노르딕 워킹을 즐긴다.

원주민과 귀촌인의 화합을 이끄는 문화공동체 허브

산외면 문화센터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색소폰교실



이다. “색소폰교실 현수막을 걸었더니, 다음날 주민 25명이 악기를 들고 찾아 오셨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월화수, 목금토 나눠서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신봉기 전 사무국장)

주민들이 강좌 개설 요청을 하고, 희망 수강생이 10명 이상 모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마을강사를 연결해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한다. 주민이 다양한 만큼 욕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천연염색반, 프랑스자수반, 영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단기성 프로그램도 있지만, 영어교실처럼 1년을 운영했던 적도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자체 프로그램은 대부분 마을강사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학원강사 출신 귀촌인이 영어교실을 맡고, 역시 귀촌 주민 중 천연염색 전공자가 관련 수업을 한다. 색소폰교실은 중급반 중 실력 있는 주민이 초급반 수업을 맡는다. 먼저 배운 주민이 나중에 오는 주민을 가르치는 식으로, 순환적으로 마을강사 양성이 이뤄진다.

산외면에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이유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주위에 100만 명 이상 도시(부산, 울산, 창원, 대구)와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이 있는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과의 교류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질감은 해소되고 함께 지역축제에도 참여하는 등 상호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월 이용료 1만원으로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과도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지역을 보면 해당 주민들 아니면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에게 앞마당을 개방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음식 나누기 행사를 한다 하면 선뜻 이 시설을 쓰시라 합니다.”(송병열 전 부위원장)

‘1인1동아리 갖기 운동’도 산외면 주민뿐만 아니라 단장면이나 산동면 같은 배후면 주민들도 환영한다.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280~380명) 중 배후면 주민 비율이 30% 가까이 될 정도로 시설 활용도가 높다. 이처럼 문화센터는 단지 정서함양과 문화생활을 누리고 익히는 터전을 넘어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주민들이 먼저 공간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 운영까지 책임지다

산외면 문화센터는 2012년 농림부의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었다. 산외면은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로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인근 도시나 다른 읍으로 이동하는 지역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마을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밀양시와 함께 사업에 공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겸직한 것이다. 이 전통은 2016년 7월 산외면 문화센터를 총괄하는 운영법인 ‘좋은날영농조합법인’과 현재의 비영리단체 ‘산외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주민들이 조성한 해바라기농지

만들 때도 이어졌다. ‘산외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는 밀양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산외면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 결합하여 주민과 단체 등의 협력을 매끄럽게 이끌어내 마중물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건물 조성 과정에는 어려움도 따랐다고 한다. 사업 초기, 다양한 주민단체들의 요구 조건들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중간에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착공한 지 4년 만에야 준공이 된 것이다. 또 막상 시설을 활용하려고 보니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처음에는 지역의 각 단체에게 공간을 주는 임대사업을 생각하고 설계했던 터라, 막상 운영위원회가 문화센터 사업을 하려니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신봉기 전 사무국장은 “공사 막판에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방음시설을 만드는 등 겨우 저희가 원하는 바의 80% 가량을 맞출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당 시설의 지속가능을 고민하며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실현시켰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최소한의 건물 전기세를 충당하고,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 비용도 절감했다. 이처럼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1만원씩 내는 회비와 주민들의 시설 이용료만으로도 행정의 도움 없이 알차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상근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자원봉사로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각종 행사 후에 뒷정리나 청소도 모두 이들이 술선하여 해결하고



체력단련실



(왼쪽부터) 김홍업 주무관, 신봉기 전 사무국장, 송병열 전 부위원장, 임국경 연구원, 박문표 위원장

있다고 한다. 또한 월평균 4팀 정도의 견학으로 창출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수익도 시설 운영비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행정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적극 지원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지역축제도 만들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1만 3,000평 부지의 기회송림에 해바라기를 심어 2018년 ‘해바라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이다. 밀양강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하천부지가 방치된 것을, 밀양시 산외면 주민들과 10개 단체 100여 명이 참여하여 손수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고 해바라기를 협동으로 심어 축제를 준비했다. 한 방향을 향해 일제히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장관에, 2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일으켰고, 2회 때인 작년에는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 주민이 뚝뚝 뭉쳐 다시 해바라기 축제를 성공리에 치러냈다. 문화센터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작은 음악회, 전시회를 멋지게 치러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외면 문화센터는 2019년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균형발전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홍업 밀양시 건설과 주무관은 “이처럼 주민들의 의지와 주도성이 살아 있는 곳은 보기 힘듭니다. 특히 보통 시설이 생기면,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마련인데, 화

주민들의 문화교육 갈증을 채워주는 문화복지의 거점이자 더욱 다양한 주민들이 연결되는 공동체 공간

합하는 모습이 정말 모범적입니다”라고 산외면 문화센터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문표 위원장도 “다른 곳을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놓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센터는 주민이 원하는 과정 위주로 꾸준히 발굴해서 잘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민들의 역량과 주민주도성을 아는 밀양시는 산외면 문화센터 운영주체의 운영 내실화와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 중간지원조직인 ‘밀양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신봉기 전 사무국장을 밀양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산외면 문화센터의 모범사례가 다른 읍면으로도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의 토대를 닦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복지의 중심,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배후주민까지 모두를 끌어안은 공동체의 중심, 시설 활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 이 작은 농촌마을의 문화센터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

CASE 6


추부복합문화센터

지역의 자부심!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의 거점

Specification

- **위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20-8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 대지 3,175㎡, 건물 2,010.14㎡
- **사업기간** | 2009~2013년(2014.1.2. 개관)
- **총사업비** | 71억 2,000만원
 - ▶ 국비 100%(농림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운영비** | 연간 4억원(군비 일부)
- **시설소유** | 금산군
- **운영주체** | 추부문화예술진흥회(비영리단체)
- **연락처** | 041-751-7097(성인옥 사무국장)

 키워드
주민교육, 문화사랑방, 공부방운동

 주민 참여 워크숍
100 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누계)
24,360 명

 평균 프로그램 수
40 개



캘리그라피 교실의 주민들 작품들

주민의 힘으로 농촌마을에 뿌리내린 예술특화 문화시설

충남 추부하면 '갯잎'이 떠오른다. 우리나라 갯잎 생산량의 40% 이상이 이곳에서 나온다. 추부면은 1980년대까지 읍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을 뿐 도서관 같은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했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만, 지금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추부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 마전리를 중심으로 금산군 주민들의 생활문화, 문화예술 중심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4년 개관한 추부복합문화센터는 6,000명 추부면 주민들은 물론 금산군과 인근 대도시 주민들도 찾아오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시설로 자리잡았다. 이곳에서는 민요, 가락 장구, 노래교실, 통기타,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음악 강습과 발레, 발리댄스, 방송댄스 등 성인과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댄스 프로그램,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예술 그리고 요가, 태보, 헬스 등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4층에는 156석 문화공연장이 있어, 웬만한 대도시 부럽지 않게 다양한 규모의 음악회와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때때로 금산군청이나 지역 단체들의 행사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시설에서 특히 눈에겨보아야 할 것은 2층의 독서실과 3층의 체력단련실이다. 두 곳 모두 추부복합문화센터의 전신 '추부문화의집'(2003~2010) 때부터 운영해오던 것들이며, 주민

친화시설로서 추부복합문화센터가 갖는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1일 개관한 추부문화의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가한, 전국 최초 면 단위 '문화의집'이다. 금산군이 예산 4억원(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지었던 추부문화의집의 '핵심'이 독서실 활동이었다. 독서실과 정보자료실, 비디오실, 음악감상실, 강의실, 문화사랑방을 둔 추부문화의집은 인근 초·중학교 청소년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교육공간이자 문화공간이었다. 서예, 미술, 악기 강습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추부문화의집은 점차 프로그램을 늘려나갔고, 금산 북부 3개 면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문화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새마을문고, 공부방 운동 등을 펼쳐오며, 이후 추부문화의집 그리고 추부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주민조직 '추부문화예술진흥회'의 오용환 부회장은 이처럼 지역의 자생적인 필요에 따라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체들의 역량이 길러졌다고 설명한다.

"지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나 여건이 너무 부족했어요.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981년에 복지회관 빈자리를 이용해 새마을문고를 시작했고, 점차 공부방도 운영했고 그게 마을문고보다는 조금 더 큰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또 이런 활동을 같이하던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관심을 갖고 가수나 피아니스트를 초청하여

추부문화의집 마당에서 공연도 열고, 강좌도 열었죠.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자고 시작한 시도들이 점차 입소문이 나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점차 발전했고, 그것이 지금의 추부복합문화센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부복합문화센터 바로 옆에는 금산군립도서관 '추부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센터에서 독서실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성인옥 사무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도서관과 독서실은 상호보완 관계다.

“도서관은 열람만 가능해요. 또 일찍 문을 닫죠. 인근 청소년들,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이용할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서실을 마련했어요. 저희 면에는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공부명당'이라고 소문났는지 인근 면, 나아가 대전시에서도 고3 학생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독서실처럼 3층 체력단련실 역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받

영하며 만들어졌다. 깃잎 농사로 지친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 피로를 풀 수 있는 이 공간은 월 2만원의 회비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주민 동호회(‘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용 후 뒷정리는 물론 기구들에 기름칠을 하고 간단한 수리도 직접 한다. 아침마다 이곳에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어르신들도 많다. 이처럼 추부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문화사랑방이자 주민 소통 공간이다.

시설 조성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다

“처음엔 주민 몇몇이 문화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시설들을 찾아다녔죠.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추부문화의집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안 올까봐 홍보도



체력 증진과 주민 소통의 공간 체력단련실

높은 문화마인드를 갖춘 행정의 지원이 추부복합문화센터의 발전 동력이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접근성이었어요. 아무리 비싼 돈 들여 멋있게 지어놓아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부지는 더 넓지만 외진 곳이었던 두 군데 후보지도 과감히 버렸죠. 마전의 중심인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설득했어요.

성인옥 추부복합센터 사무국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사람들로 행사장이 꽉 차더라고요.”(김해경 추부문화예술진흥회 이사)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자 더 넓고 제대로 된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2007년 농림부의 거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도전했다.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에 나섰다.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하며 해당 시설 건립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기존 운영주체들 외에 지역 내 주민조직(마전 9개 리 이장 및 주민자치회, 상인회 등)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문가 집단(중부대학교,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계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거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70억원 규모)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7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왜 마전6리에만 하느냐?”, “우리도 체육관 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러지 말고 1/10씩 예산을 나눠서 하자”는 등 부지 선정을 두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

“특히 부지를 두고 의견이 많이 엇갈렸죠. 다른 마을에서도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 하니깐요. 그런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접근성이었어요. 아무리 비싼 돈 들여 멋있게 지어놓아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부지는 더 넓지만 외진 곳이었던 두 군데 후보지도 과감히 버렸죠. 마전의 중심인 이곳에



지원사업과 연계한 구루마 사진촬영교실



(왼쪽부터) 장복순 금산군 문화예술팀장, 김해경 이사, 성인옥 사무국장, 오용환 부회장



취미 미술반의 미술도구들

있어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설득했어요.”(성인옥 사무국장) 간담회와 워크숍, 설문지 사업, 청소년 인터뷰, 학부모회와의 만남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의견을 모아갔다. 각종 회의와 간담회만 100여 차례 진행됐다. 운영주체(추부문화예술진흥회)의 강한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쌓아온 신뢰가 없었더라면 더 힘들었을 사업이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논의도 했지만, 실제 설계에는 잘 반영되지 않아 개관 후에 보니,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공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층 다목적실로 초기에 이곳은 전시실로 조성되어 있었다. “장구, 민요 같이 앉아서 하는 수업을 여기서 해요. 마루를 깔아 앉아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방음처리 공사도 다시 했죠. 요즘은 겨울에 춥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닥에 내장재 공사를 하려고 해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전기패널을 넣었다더라면 이렇게 추가로 작업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말이죠.”(성인옥 사무국장)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움직이는 추부문화예술진흥회

시작부터 주민 주도로 움직였던 만큼 운영도 주민조직이 맡고 있다. 추부문화예술진흥회(총 13명)는 비영리단체로 금산군과 위탁계약을 맺고 이곳을 운영한다. 성인옥 사무국장 과 2명이 센터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큰 규모의 건물로 연간 약 20명 이상의 강사진과 40여 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연간 4억원 가량 소요된다. 금산군에서 지원해주는 1억 5,500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상시 프로그램 강사비로 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 미술반



처음엔 주민 몇몇이 문화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시설들을 찾아다녔죠.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추부문화의집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었어요. 솔직히 클래식 연주회 때는 사람들이 안 올까봐 홍보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사람들로 행사장이 꽉 차더라고요.

“추부 깃잎의 생산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구 주민들이 많아졌지만 마을 주민들과는 아직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싶습니다.”

김해경 추부문화예술진흥회 이사



고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운영비는 성인옥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각종 정부 공모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건물에 비해 관리하는 직원수가 적은 것도 인건비를 아껴 더 많은 주민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한다.

성인옥 사무국장은 문체부, 교육청, 충남도, 농어촌희망재단 등 웹사이트를 찾아보며 센터에 적합한 사업들을 찾아내고, 평소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온 프로그램들을 꼼꼼히 살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1,600만원), 한국타이어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과 연계한 울키스트라(8,000만원), 한국문화의집협회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한 구루마사진촬영교실(4,5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2019년에도 15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1억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매칭하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고집하지 않고, 면 소재지 연계기관과 조율하는 등 협업의 묘도 발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또한 인근 대도시 주민들도 참여를 희망하자, 지역 제한을 풀고 그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추부복합문화센터가 이처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문화예술거점 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인옥 사무국장 과 오용환 부회장, 김해경 이사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있는 주민들이 사심 없이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높은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자긍심과 공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부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부 깃잎의 생산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구 주민들이 많아졌지만 마을 주민들과는 아직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싶습니다.”

CASE 7

예주생활관

폐교를 살린 주민들의 지혜가 만든 마을 배움터

Specification

- 위치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8길 14-7
- 규모 | 지상 3층
 - ▶ 대지 2,543㎡, 건물 2,535㎡
- 사업기간 | 2010~2014년(2014.12. 개관)
- 총사업비 | 70억원
 - ▶ 국비 49억원(농림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 도비 5억 2,600만원
 - ▶ 군비 15억 7,400만원
- 운영비 | 연간 약 6,100만원(자체 조달)
- 시설소유 | 경북 영덕군 ➤ 운영주체 | 예주고을영농조합법인
- 연락처 | 504-734-0974(박승배 사무장)

 키워드
주민참여, 농촌지역거점, 전통문화자원, 주민순환시스템

 개관 후 연간 이용자 수
66,122명

 예주생활관(작은도서관) 회원수
1,720명

 보유 도서 수
13,300권



주민참여 선도사례



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행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후화된 대규모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들이 돌파구로 찾은 방법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 소재지를 중점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영덕군의 북부 4개 면의 교통 중심지이자 생활권의 중심이라는 영해면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공동체공간 시설 조성사업을 준비했다. 과정이 쉽진 않았다. 공모사업 준비에만 1년이 걸렸고, 주민 추진위원회와 영덕군 농촌개발팀이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영해면 성내리, 괴시리, 연평리 등 주변 마을 주민들을 모아 함께 마을 개발협의회 자리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체 공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전국 16권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폐교에서 주민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영해면에는 영해초등학교, 영해중학교, 영해고등학교,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있다. 원래는 영해여자중학교와 영해여자정보고등학교가 더 있었다. 각각 1964년, 1967년 설립된 학교였지만,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 영해고등학교로 통합되면서 2009년 폐교되었다. 폐교되면 해당 부지는 기업이나 일반 개인에게 팔릴 운명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영해 주민들은 학교를 지키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개 아니어도, 주민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라. 50년 넘게 우리 누나와 언니가 다녔고, 우리 딸들이 교육 받던 곳이 아닙니까. 이 학교, 이 땅은 우리 고향이니 지켜야죠."(백운상 '예주생활관' 대표이사)

주민들은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영덕군에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건의했다.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영덕군이 폐교를 매입하고, 주민들과 함께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고민했다. 그리고 당시 건의에 주도적으로 나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장, 사회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의 리더격인 주민 30

주민들이 자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행정

주민들의 건의로 조성되는 지역공동체 공간인 만큼 운영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영덕군은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간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을기업이나 거점면 사업을 진행한 타지역 공간을 견학하기도 했고, 사무장 교육도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는 시

도서관, 컴퓨터교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시설 조성 시 100% 반영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높여



간이었어요.”(박승배 ‘예주고을영농협동조합’ 사무장)
 이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온 주민들은 이웃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 주민공동체 공간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 아이디어는 공간 설계에 100% 반영됐다. 전통찻집, 식당, 정보화센터, 작은도서관, 서예교실, 공부방, 다목적실, 세미나실, 숙박동 등이 그 결과물이다. “주민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을 행정이나 전문가가 마음대로 설계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니까요.”(백운상 예주생활관 대표이사)
 특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바랐던 시설인 도서관과 컴퓨터교실은 영덕군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조성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갈 만한 도서관이 없고, 컴퓨터 수업을 여는 곳도 없어 불편이 많았는데, 수만 권의 책을 구입하고 컴퓨터를 설치하



는 데에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행정이 연계사업에 공모하여 주민의 의견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주민들이 자체 역량을 기르는 동안 영덕군은 물리적 환경 조성, 즉 주변 지역 경관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 예주생활관 주변에 한마음광장, 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정비,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했다. 이로써 주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문턱이 낮은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폐교와 맞닿아 있는 영해향교의 울타리를 헐어 학교 운동장과 어우러지게 했다.
 향교와 학교를 가르던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예주생활관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향교를 찾고, 반대로 향교를 찾아온 이들이 예주생활관으로 오게 되었다. 이같은 환경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전통생활 정신화 체험지구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영덕군 농촌개발팀 박운정 팀장은 “영해향교는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라 주변 지역 개발이 불가능했어요. 문화재를 지키면서 예주생활관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이런 연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라고 설명했다.

주민이 곧 선생이고 학생이다!
‘선순환 교육시스템’으로 참여 강화

예주생활관은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예주고을영농협동조합’을 설립, 영덕군으로부터 예주생활관을 위탁받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예주고을영농협동조합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실을 진행한다. 전통찻집은 다도교실, 예절교실, 다문화교육 등으로 활용된다. 공부방에서는 방과후에 예주학당이 열린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멘토링, 외국어 수업도 진행한다. 모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열리는 프로그램도 많다. 요가, 노래교실, 서예교실, 농가주부 모임, 전통음식체험 등이 그 예다. 운영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서예 교실

확하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2009년부터 영덕군 사회복지회관에서 서예를 배우던 남효달 할아버지는 예주생활관이 열리자마자 서예교실을 맡기도 했다. “서예를 배우는 즐거움이 커 먼 곳까지 가는 불편함도 감수했는데 이런 곳이 우리 마을에 생겼다니 얼마나 기쁘니까. 주민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면 더 즐거울 것 같아 서예교실을 만들었습니다.”(남효달 할아버지)

이처럼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자 자연스럽게 방문자도 늘었다. 예주생활관의 이용도를 높이는 데는 ‘주민 선순환 방식’이라는 독특한 교육시스템도 한몫했다. 주민 선순환 교육시스템이란 수업을 이수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수업을 이끄는 강사가 되는 방식이다. 전문가에게 수업을 들은 주민이 본인이 배운 지식을 다음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주민에게 가르쳐주는 제도로, 이러한 운영방식은 주민

참여도를 높인다고 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모르는 걸 배우는 즐거움이 주민들을 스스로 시설로 오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이 가진 역사와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도 펼친다. 조합은 ‘예주고을’이라는 마을지명을 새롭게 지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찹쌀경단, 쌀강정, 약식, 메밀만두 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괴시리 전통마을, 영해향교, 목은이색로 탐방 등도 진행한다. 전통 예절, 다도 교육도 열린다. 강사는 지역의 어르신이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은 세대간 장벽을 허물고 지역 네트워크의 장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준다.

배후면 주민들의 문화교육 갈증까지 해소

그동안 문화교육 체험을 하려면 읍내까지 먼 거리를 가야 했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뭔지 선진 견학을 하며 배우고
주민들을 모아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을
행정, 전문가가 마음대로

설계해버리면 안되지 않아요

백운상 예주생활관 대표이사



던 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다. 누구나 편하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주민 배움터로 입소문이 난 예주생활관은 영해면뿐만 아니라 인근 4개 면 주민들의 이용도 또한 높다.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농촌마을에서 지역민들의 문화교육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1만 3,300여 권을 보유한 영해면 최초의 도서관인 예주고을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문화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수 1,720명, 일일 평균 이용객수는 30~40명으로 학생과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예주생활관에서 서로 몰랐던 주민들이 만나면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변화도 생겼다. 모임을 만들거나 마을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이 생긴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더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초록우산 어린이 놀이터 공모사업에 신청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다. 영해면 최초의 어린이 놀이터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없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 주민들이 ‘놀이터’를 제안했고, 조합 사무장이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해 탄생한 결과다. 아이들이 오니 부모들이 모이고, 덩달아 예주생활관의 프로그램 참여나 이용도가 높아졌다.

이곳의 운영비, 유지비 등은 행정의 지원 없이 조합이 충당한다. 3층 숙박시설의 대실료가 주요 수입원이다. 영덕군은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열릴 때 선수들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도록 연계해준다. 이렇게 번 수익은 공간 유지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고스란히 환원된다.

조합은 보다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법인 운영주체 변경을 고민 중이다. “영해면이 농촌이다 보니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했지만 예주생활관 운영하고는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법인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박승배 사무장)

고려 말의 학자 목은 이색이 살았고, 퇴계 학맥을 잇는 8성 종가가 있는 인랑리 전통마을이 지척인 영해면. 천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주민들이 폐교를 품어 만든 예주생활관. 주민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일군 이 공동체공간이 앞으로 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거점이 되길 바란다.



작은도서관 내 어린이 공부방



주민공동체를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기차게!



PART 02 **생활SOC와**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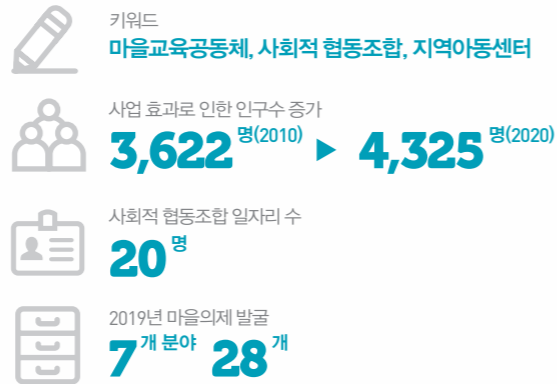
- 08** 송악마을공간 해유
- 09** 통도아트센터
- 10** 회현사랑채·감나무집·계단집
- 11**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송악마을공간 해유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 나아가는 생활SOC

Specification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길 24
- **규모** | 지상 2층
 - ▶ 대지 2,715㎡, 건물 413.83㎡
- **사업기간** | 2009~2017년(2017.11. 개관)
- **총사업비** | 25억 3,400만원
 - ▶ 국비 17억 7,400만원(농림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 도비 1억 1,400만원
 - ▶ 시비 6억 4,600만원
- **운영비** | 연간 약 3,500만원(시비 일부) ➤ **시설소유** | 아산시
- **운영주체** | 송악동네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 **연락처** | 041-545-0535(박민영 이사장)



월요일은 마을연극단, 화요일은 건강몸살림·재즈댄스, 수요일은 재봉·마을가드닝, 목요일은 마을공유부엌·인문낭독, 금요일은 펜드로잉·마을밴드, 토요일은 생활목공...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거의 매일 진행되는 이곳은 송악마을 주민들의 마을배움터, 문화공유공간인 '송악마을공간 해유'(이하 해유)이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마을인생학교와 마을커뮤니티케어 활동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층에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2층에는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가 있는 2층 건물로 건물 앞 넓은 마당은 계절마다 열리는 마을장터 '놀장', 마을축제 '송악골목예술제'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1층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책방 겸 카페를 조성했고, 마당 구석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들여 생활목공 공간을 열었다.

2017년 11월 개관하여 운영기간은 이제 3년을 조금 넘겼지만 '해유'는 2018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 최우수상(행정안전부)을 수상할 정도로 강한 공동체성을 인정받았다. 해유가 이처럼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와 두 개의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합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경험과 그 속

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에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로 나아가는 송악동네사람들

에서 성장한 주민들의 뛰어난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경험이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마을의 유휴공간을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은 주민들의 역량과 자신감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내다

2010년 9월 송악면 역촌리가 농림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이장, 노인회 등 지역 유지로 구성된 송악면거점마을사업 추진위원회는 이곳에 50평의 한옥 건물(전통체험센터)을 꾸밀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외암민속마을과 유사한 테마의 건물이 중복하여 생기는 것보다는, 함께 배우고 활동할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런 의견을 정리하여 아산시에 전달했다. 아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1차 설계안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공간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주민들은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찾아가 수정 설계안을 완성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확정되었다.

그렇게 2016년 3월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송악면거점사업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추진위원회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역량에 한계가 있어 시설은 1년 여 가까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또 거점면사업을 진행했던 역촌리 추진위원회는 해당 시설을 역촌리의 마을사업거점공간으로 이해했던 주민들이 많았기에 송악면 전체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 마을 내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한 주민들(송악동네사람들 협동조합)과 아산시 건설과 농촌지역개발팀이 끊임없이 만나는 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아산시 건설과 농촌지역개발팀장이었던 이도순 팀장(현 온양4동 동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지역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설득 작업을 펼쳤다. 여기에 2004년부터 꾸준히 조순가

족의 아동 돌봄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교류해온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노력이 있었다. 2017년 9월 드디어 송악면거점마을사업 추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아산시 3자간의 협약을 통해 송악동네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11월에 정식으로 마을공유공간 해유가 개관될 수 있었다.

어르신 돌봄과 청년 일자리 등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다

송악동네사람들은 10여 년 전, 공동체적인 삶, 협동적 삶을 꿈꾸는 젊은 학부모들이 송악마을에 내려와 정착하면서 하나둘 꾸려진 협동조합들 중 하나다. 2000년대 초반, 폐교위기에 직면한 거산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지키기 운동의 결과, '전원형 작은 학교'로 공교육 안의 대안학교가 되면서 시골마을에서 생태적이고 건강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모들이 마을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송악면의 거산초등학교에 이어 송남초등학교 또한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학교로 성장하면서 거산초, 송남초, 송남중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고, 송악면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정착한 주민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동조합 공부를 시작했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하면서 하나둘씩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지역의



왼쪽부터 홍승미 상임이사, 한상길 아산시 농촌지역개발팀장, 이종순 온양4동 동장, 박민영 이사장

“마을 비전 워크숍을 여섯 차례 진행했어요. 그동안 송악마을에서 마을교육공동체로 20년 넘게 활동해왔는데, 앞으로 10년의 과제는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나온 첫 번째 마을의제가 어르신 돌봄이었고, 두 번째가 마을 안의 배움이 세대간의 배움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마을작업장학교였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 마을중심 어르신 돌봄, 즉 마을커뮤니티케어, 그리고 마을인생학교라는 사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민영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이사장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동조합 준비를 시작했던 토대”(박민영 송악동네사람들 이사장)가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귀농인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판매 등을 하는 협동조합 고랑이랑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적정기술과 대안에너지를 연구하는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이 뒤를 이었다. 2016년 7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며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송악동네사람들이다. 그간 해유를 운영하는 데에 집중하며, 마을에서 아이들 교육과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송악동네사람들은 2021년을 바라보며, 보다 본격적으로 마을경제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다양한 사업을 모색 중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주민주도형 지역문제해결 민관거버넌스사업) 대상 마을로 선

정되었고, 마을의제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7개 분야, 28개의 지역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비전을 만들어왔다. 첫째는 마을커뮤니티케어 사업이다. 고령화된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대표적 어려움인 어르신 돌봄을 돌봄경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려 한다. 박민영 이사장은 “마을 비전 워크숍을 여섯 차례 진행했어요. 그동안 송악마을에서 마을교육공동체로 20년 넘게 활동해왔는데, 앞으로 10년의 과제는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나온 첫 번째 마을의제가 어르신 돌봄이었고, 두 번째가 마을 안의 배움이 세대간의 배움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마을작업장학교였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 마을중심 어르신 돌봄, 즉 마을커뮤니티케어, 그리고 마을인생학교라는 사업이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마을커뮤니티케어 사업 수행을 위해 송악동네사람들은 울



2층의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송악마을공유공간 해유를 찾은 마을 청소년들과 청년

해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복지과 등 행정과 유관기관들과 함께 민관커뮤니티케어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송악동네사람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면, 마을인생학교 사업은 그간 해온 마을학교(‘마을 언니에게 배우자’)의 확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홍승미 송악동네사람들 상임이사는 “저희가 2013년부터 ‘마을이 학교다’라는 모토로 진행해오던 상호 배움의 모델을 이어나간 것이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예요.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는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고 누구나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손맛 좋은 어르신이 젊은 주부들에게 장 담그기를 가르치는 식으로 소소한 마을사람들 간의 배움이 일어나게 했던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를 조금 더 전문화시킨 것이 마을인생학교다. 마을인생학교는 마을 예술가와 장인, 멘토들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작업장 학교, 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든 배우고 수업을 나누는 플랫폼 학교다.



공유주방

“마을 도예가가 청년에게 도예를 가르쳐주고, 제빵을 배운 청년이 청소년들에게 빵 만들기를 가르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시골살이에 꼭 필요한 다양한 생활기술(집수리, 생활목공, 가드닝) 수업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공방수업을 점차 마을 작업장으로 키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홍승미 상임이사)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에서 함께 자란 청년들이 마을에서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활동가가 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 시작점으로 현재 송악마을에서 자란 청년 중 4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명은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에서, 2명은 협동조합에서 일한다.

로컬 작물, 주민이 만든 수공예품이 지역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민간이 만나는 제3의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물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지역(경제)사회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조직과 활동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들고, 협동과 연대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풀어간다.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설명이지만, 송악동네사람들에게는 이 개념이 낯설지 않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풀어내면서 공동체의 상생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되게 하는 흐름을 이미 ‘놀다가게’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놀다가게는 2016년 4월, 학교 앞의 빈 문방구 공간을 활용



송악마을 해유의 사무국 모습



송악동네사람들의 안내 팸플릿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도예작품으로 만든 마을지도

“



마을인생학교 사업은 마을 예술가와 장인들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작업장 학교, 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든 배우고 수업을 나누는 플랫폼 학교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마을이 학교다’라는 모토로 진행해온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라는 상호배움의 모델을 조금 더 전문화시킨 모델입니다. 마을도예가가 청년에게 도예를 가르치고, 제빵을 배운 청년이 청소년들에게 빵 만들기를 가르치는 거죠. 이런 공방수업을 점차 마을작업장으로 키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홍승미 송악동네사람들 상임이사

”

해 만든 무인 물물교환 장소로 주민들 누구라도 생산하거나 나누고 싶은 물건을 나누는 ‘한칸누구나가게’로 활용된다. 그 대상은 책에서 출발하여 점차 마을 주민들이 만든 공예품, 텃밭의 작물들까지 확장됐다. 물물교환에서 매매까지 방식도 다양하다. 이 모든 과정이 자율적이다. 또 놀다가게는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모임이 있어, 주민 사이에 일상적인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동순 온양4동 동장은 “코로나19 때 이 놀다가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근처에 친환경 채소단지가 많은데 코로나로 학교가 급식을 못하게 되면서 단지마다 손해가 엄청 나다는 말을 듣고, ‘1만원짜리 꾸러미’를 만들어 놀다가게와 연동했어요. 한 주에 100~200개씩 놀다가게에서 다 소화하면서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줬죠. 굳이 마트에서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마을의 작물을 사서 그 소비가 마을로 돌아오게 하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을경제이고 사회적경제죠.”

교육과 문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들이 모여 송악마을은 농촌마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다.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도리어 인구도 늘었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1,2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이들 수가 370명(거산초등학교 120명, 송남초등학교 250명)이나 늘어난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해유를 중심으로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키워나가고 있는 송악동네사람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꿈과 변화의 실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CASE 9

통도아트센터

지역 칩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나서다

Specification

-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중앙길 24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757㎡, 건물 327.5㎡
- ▶ **사업기간** | 2014.9~2016.4(2016.5. 개관)
- ▶ **총사업비** | 60억원
▶ 국비 42억원(농림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도비 5억 4,000만원
▶ 시비 1억 2,600만원
- ▶ **운영비** | 연간 약 6,000만원(자체 조달) ▶ **시설소유** | 양산시
- ▶ **운영주체** | 통도예술마을협동조합(예비 사회적기업)
- ▶ **연락처** | 055-367-9556(예성수 사무국장)

 키워드
예비사회적기업, 예술마을, 실버일자리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연평균 **10,000** 명

 카페 소소 연간 수익금
6,000 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2020년 9월 기준)
5 명



문화 소외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는 우리나라 삼대 보찰(寶刹) 중 하나인 통도사가 있다. 이 통도사를 바라보고 사과석으로 포장된 멋스런 길이 신평중앙길이다. 이 신평중앙길에 작은 광장을 끼고 단단히 솟아오른 큰 건물이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통도아트센터'다. 2016년 개관한 통도아트센터는 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한 핵심시설이자 주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의 거점이다.

지하에는 217㎡ 규모의 대강당이 있고, 1층에는 실버 바리스타가 있는 북카페(‘카페 소소’)와 우표·화폐·동전과 도자기 전시실, 운영사무실, 2층에는 작은도서관과 문화강좌실, 동아리연습실, 3층에는 다목적홀과 어르신활성화센터 등이 있는 꽤 큰 규모다. 바로 옆에는 농산물 판매장과 100평 규모의 광장, 그리고 주차장 등이 있다.

꽤 여러 매스컴에 등장하여 화제가 된 1층의 카페 소소는 평균 연령 65세의 할머니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지역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로 인생 제2막을 여는 할머니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표·화폐·동전 전시실도 흥미로운 공간이다. 양산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30년 넘게 모아온 우표·화폐·동전을 기증한 곳으로, 어린 시절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외에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도예, 서예, 서각 등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실도 있다.

그러나 이곳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은 2층의 '순지 작은도서관'이다. 위치적으로 멀어 관내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하북면 주민들에게 도서관은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 꼽혀왔다. 순지 작은도서관은 꾸준히 도서를 구입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2017년 1월 사립에서 시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약 6,000권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만 명이 찾고 있다. “하북면 주민이 8,200명이니 어렵짐작해도 모든 주민이 1회 이상 방문했다는 얘기”(예성수 사무국장)다. 깔끔하게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열람석 외에 나뭇바닥을 마련하여 엄마와 아이들, 고령자들도 편히 책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아 대상 촉각 미술 놀이프로그램부터 청소년 대상 두뇌개발 보드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



통도아트센터 1층 카페 소소



순지작은도서관 내 돌봄기능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

해왔다. 민요, 멀티로빅, 민화, 농악교실 등 고령자 주민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3층에는 주민들의 회의나 모임 장소, 그리고 통도예술마을로 견학 오는 이들의 교육장소로 쓰이는 다목적홀과 어르신활성화센터가 있다. 어르신활성화센터는 양산시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면인 하북면의 특징을 반영한 공간이다. 예성수 사무국장은 “경로당 지회가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오갈 데가 없다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시와 합의를 하여 공간을 내드렸습니다”라고 귀띔한다.

그 외 지하 대강당이 있다. 지역행사 등이 열리는 곳으로 2019년 3월에는 동부경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신평 만세운동'을 100년 만에 재현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밖으로 나가면 문화광장이 있다. 양산문화축제 등 지역 축제와 각종 공연과 버스킹, 행사가 열리는 무대다. 코로나19 전에는 한 달에 2~3회씩 버스킹 공연이 열릴 정도로 활성화된 곳이다. 문화적 혜택이나 편의시설 등에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주민들에게 통도아트센터는 이처럼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지작은도서관



순지작은도서관은 고령 주민 친화적이다.

사비를 털어 선진지 견학에 나선 주민들의 노력

하북면 순지리 일대는 농촌지역이지만, 농업인구는 50% 정도이고 나머지 주민들은 상업이나 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도농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통도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했고, 작은 예술마을 같은 성격도 지니고 있어 양산시에서도 중심부로 꼽혔던 곳이었다. 그러나 통도나 들목 IC가 이전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삼성SDI가 경영난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침체에 빠져들었다. 한때 1만 명이 넘었던 지역 인구가 8,200명으로 줄어들면서 지역 낙후도는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뜻있는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면장과 전직 양산시 시의원, 순지리 5개 행정동 이장,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온 주민들이 모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농림부의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북면을 살릴 좋은 기회라고 본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양산시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선진 견학에도 나섰다. 김상걸 통도아트센터 전 운영위원장은 “이복우 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각각 사비를 들여 전국 30여 개의 우수 사례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을 살리려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거점시설이 꼭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죠”라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1층 규모로 시설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부지에 4층 건물이 나왔다. 지하에 나이트클럽과 지상 3층까지 음식점이 있던 큰 건물이 폐업을 한 것이다. 추진위

원회는 공실인 건물을 방치하느니 이곳을 매입하여 쓰자고 제안했다. 양산시가 건물이 너무 커서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하자, 추진위원회는 건물 층별로 시설 운영 방안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여 양산시와 협의에 들어갔다. 주변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의 타당성, 1층을 주민참여형 카페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되 도서관과 광장은 꼭 필요하다는 공간 조성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때 나왔다. 그렇게 6개월 여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설계 초안에 근거해 통도아트센터가 조성될 수 있었다.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나서서 사비를 털어 선진지 견학에 나섰어요. 그 결과 지역을 살리려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거점시설이 꼭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죠.

김상걸 통도아트센터 전 운영위원장



무엇보다 통도아트센터라는 주민이 모이는 거점, 방문객들이 찾아가보고 싶은 거점이 생김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을 주민주도로 이뤄냈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것이고요.

전진승 양산시 지역재생과 농촌개발팀장



카페 소스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들

시설 운영을 통해 실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통도아트센터의 운영은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주도했던 주민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주민 주도로 마을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열기로 하고, 2017년 9월 통도예술마을협동조합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예비 사회적기업인 통도예술마을협동조합은 현재 카페 소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바탕으로 통도아트센터를 운영하



(왼쪽부터) 조이수 지역재생과장, 전진승 농촌개발팀장, 강효정 주무관, 김동훈 전 사무국장, 김상걸 전 운영위원장, 이복우 운영위원장, 예성수 사무국장



(위) 우표, 화폐, 동전 전시실. (아래)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장

고 있다. 통도아트센터가 경남을 대표하는 농산어촌 개발 모델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연간 20회 이상 이곳을 찾고 있고, 그 효과로 카페 소소는 연간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외 1,000만원 정도의 필요 예산은 소소한 유료 대관이나 기업체 협찬 등으로 확보한다고 한다. 카페 소소의 '실버 바리스타'들은 초기에는 100%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로는 9명 중 7명이 임금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2019년엔 4명으로 줄었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은 다시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일자리 창출효과만 보면 미미할 수도 있으나, 행정과 주민 모두 이런 거점 공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놀랄 만큼 크다고 생각한다. "작년 맥주축제 때는 1박2일 동안 4,000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통도아트센터와 문화광장, 저희 카페 소소 같은 거점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매출도 물론 오르지않, 주변 상권들도 매출이 30% 정도



작년 맥주축제 때는 1박2일 동안 4,000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통도아트센터와 문화광장, 저희 카페 소소 같은 거점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매출도 물론 오르지않, 주변 상권들도 매출이 30% 정도 당달아 오르니까요.

예성수 통도아트센터 사무국장



화사업, 환경 간판 개선사업, 도로경관 개선사업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통도아트센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민원을 줄일 수 있게 지원했다고 한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커뮤니티 거점을 만들고, 해당 시설을 지자체나 정부의 도움 없이 운영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재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통도아트센터. 이처럼 통도아트센터가 지핀 불씨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불꽃을 피워냈다. 앞선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그 결과 150억 규모의 하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도아트센터의 이복우 운영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민간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에 국토부의 신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정보진흥원의 스마트 빌리지 등 국비 공모사업들을 연계하여 하북면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조이수 양산시 지역재생과장의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지역의 미래를 고민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통도아트센터. 통도아트센터는 이 모든 지역활성화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한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달아 오르니까요."(예성수 사무국장)
"무엇보다 통도아트센터라는 주민이 모이는 거점, 방문객들이 찾아가보고 싶은 거점이 생김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을 주민주도로 이뤄냈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것이고요."(전진승 양산시 지역재생과 농촌개발팀장)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센터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따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 통도아트센터의 시설 조성 작업을 할 때도 사전에 전선 지중

CASE 10

회현사랑채·감나무집·계단집

주민이 운영하는 앵커 시설, 원도심을 바꾸다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 65-12
- 규모 | 지상 2층
 - ▶ 대지 108.4㎡, 건물 112.15㎡
- 사업 기간 | 2019.11. 개관
- 총사업비 | 16억 2,000만원(시비)
- 운영비 | 연간 3억원(시비)
- 시설 소유 | 서울시
- 운영 주체 |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 연락처 | 02-3275-7774(이종필 이사장)

-  키워드
사회적 협동조합, 앵커시설, 도시재생
-  연간 이용자 수(2019년)
2,904 명
-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 수
29 명
-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주민조합원 비율
70 %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 중 하나는 차가 다니던 서울역 고가차도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서울로7017'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서울로 7017과 더불어 철도로 단절되었던 서울역 일대의 동·서 지역을 연결하고 침체되었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활성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

회현역 3번 출구를 나와 회현동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만든 2층 카페 '계단집'이 나온다. 1935년 지어진 목조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한 계단집에서는 마을 바리스타가 만든 스페셜티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좋은 원두로 내린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마을 바리스타의 전문성과 친절함, 레트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인테리어까지 계단집은 지역의 주민은 물론 인근 회사원, 카페를 투어하며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카페투어족이 찾는 명소다.

계단집에서 조금 더 걸어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골목길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회현사랑채'가 나온다. 담이라 할 것도 없는 낮은 울타리 너머 마당, 커다란 창고 하얀 건물의 회현사랑채는 이름 그대로 회현동의 마을회관이다. 아이들과 엄마,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어울린다.

회현동만이 아니다. 서울역 너머 서계동에는 오래된 2층 집을 개조해 공유부엌과 공유서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감나무집'이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모임을 연다. 마당 앞 상자텃밭에서는 상추, 토마토 등 채소가 자란다.

회현사랑채의 공간매니저 노문이 씨는 "회현사랑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회현동에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회현동주민센터 3층 강당이나 2층에 있는 카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강당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돼 제한이 많았습니다"라며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이 추진되는 회현사랑채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한다.

계단집, 회현사랑채를 포함해 회현동, 서계동, 중림동 등 서울역 일대에 이런 공간이 8개나 있다. 오래된 판자건물과 무



회현사랑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회현동주민센터 3층 강당이나 2층에 있는 카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강당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돼 제한이 많았습니다.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이 추진되는 회현사랑채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노문이 회현사랑채 공간매니저



허가 창고를 개조해 문을 연 복합문화시설 중림창고, 서울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마을카페 청파언덕집, 공유부엌과 공유서가가 있는 감나무집, KBS 이육정 PD가 이끄는 쿠킹 스튜디오와 음식 관련 교육과 체험 공간인 검벽돌집, 청파언덕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있는 문화예술공간 은행나무집, 8개의 공간을 관리하며 마을 관리소의 역할을 하는 빌라집 등 지역의 오래된 건물이 때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



회현사랑채 1층의 공동육아실을 포함한 커뮤니티 공간



계단집 공간 이정표

주민과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변화를 이끈 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시행된 사업이지만 계획과 설계, 현재 운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다.

서울시는 2017년 말 철도로 단절된 서울역 일대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수립하고,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서울역, 중림동, 회현동, 서계동, 남대문시장 일대 등 총 5개 권역(195만㎡)을 통합적으로 종합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사업의 시작에는 이처럼 행정이 있었지만, 사업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었다. 김지호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주무관은 “8개의 시설 설립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설 운영관리는 해당 지역 주민이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한 사업으로 묶여 있는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이었지만 각각 처한 상황이 달랐다. 중림동은 상인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했다. 2000년대부터 역세권 개발지로 알려진 서계동은 외부 투자자가 60% 이상으로 주민들은 오랜 시간 재개발 추진을 요구해왔던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자 재개발이 무산된 주민들의 분노가 터졌다. 주민



마을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로 조성된 계단집

들의 항의와 집단 시위가 이어졌다. 회현동의 경우는 서계동처럼 개발 이슈는 없었지만 주체가 되어줄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계단집 내부 카페 공간

이런 상황에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림로 상인들을 만나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6회에 걸친 상인 워크숍을 진행해 중림동 상인들의 의견을 모았다. 서계동은 사흘에 걸친 서계동 마을 엑스포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 워크숍, 도시재생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각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주민협의체와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구성된 각 동의 주민협의체와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공공재생과, 공공건축가 등이 모여 8개 거점시설의 계획 및 설계, 공간 활용 방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며 공간을 기획했다. 이종필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 과정

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간을 만들고 그 이후 운영을 주민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진짜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회현사랑채가 있는 회현동은 노후되고 협소한 주택이 많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주민들은 “우리가 모여 무언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업 초기 남촌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엄마들이 회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회현사랑채의 1층이 공동육아실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결정되었다. 2층은 회의실과 강의실이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놀이, 독서 프로그램은 물론 부모 교육, 엄마들의 반찬 나눔,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유 냉장고에는 주민들이 넣어두는 먹거리로 늘 가득 차 있다는 게 노문 이 공간매니저의 귀띔이다.

서계동의 실질적인 주민은 외부 지주의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청년들이었다. 청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지만, 정작 이들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무했다. 그런 서계동에 만들어진 감나무집의 주요 테마는 공유주방, 공유밥상, 공유오피스이다. 서계동에 위치한 청파언덕집, 검벽돌집, 은행나무집이 각각 마을카페, 음식 관련 체험 공간, 문화예술공간으로

회현사랑채를 비롯한 8개 공간은 조성 전,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공공재생과, 공공건축가 등이 모여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계획 및 설계, 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을 테마로 지어진 청년 공간, 감나무집

나무집의 공간매니저인 김현주 씨는 각각 회현동, 서계동 주민으로 각 공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해왔다. 이들은 도시재생센터의 교육을 통해 공간매니저가 되었다. 주민운영위원회가 되려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주 4시간 이상 해당 거점시설에서 관리·운영·봉사 참여, 시설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등 필수적인 참여 기준이 엄격한데, 소수의 인원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주민을 위한 시설이 주민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간의 성격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회현사랑채, 감나무집, 은행나무집, 빌라집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네 곳은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반해, 카페인 계단집과 청파언덕집, 복합문화공간 중림창고, 검벽돌집은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고 수익 창출 활동을 하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눈다”는 생각하에 베이킹 클래스, 쿠킹 클래스, 밥상 모임, 텃밭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의 주체

서울역 일대의 8개의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지만, 운영은 공개입찰로 선정된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CRC)과 요리인류(컨소시엄 명 '서울역 해피루트456')가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출범한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70%가 회현동, 중림동, 서계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재생기업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는 도시재생센터가 수행해온 역할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종필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보통의 거점시설처럼 각각 운영자를 두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 활성화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 유리해 보였다”면서 “CRC가 전체 시설을 아우르며 지원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CRC의 역할을 소개했다.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설의 총괄 운영을 맡고, 각 시설들은 조합원이자 이 지역의 주민인 공간 매니저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인 청년 크리에이터, 각 동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운영위원회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 활용안을 마련한다. 회현사랑채 공간매니저인 노문이 씨, 감



(왼쪽부터) 권효정 마을 바리스타, 노문이 공간 매니저, 김현주 공간 매니저, 이종필 이사장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나서 운영을 주민에게 맡길 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진짜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종필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미니 공유 텃밭



함께 모여 요리하는 공유주방

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시설을 운영한다. 이종필 이사장은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나눠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형 시설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비수익형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일종의 자립을 위한 지구책이다. 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공간이라면, 카페나 복합문화공간은 외부에서의 사람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이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 반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계단집이나 중림창고 등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단순히 도시재생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모델을 만들고 있는 서울역 일대의 8개 도시재생공간. 이들의 과감한 시도와 실험은 생활SOC의 구성과 운영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CASE 11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주민 주도로 어두운 골목을 밝히다

Specification

- **위치** | 대구시 서구 국제보상로83길 21
- **규모** | 지상 3층
 - ▶ 대지 675㎡, 건물 234.73㎡
- **사업기간** | 2016.12.~2017.11.(2017.12. 개관)
- **총사업비** | 28억원
 - ▶ 국비 14억원(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 시비 7억원
 - ▶ 구비 7억원
- **운영비** | 연간 2,636만원(구비) ➤ **시설소유** | 대구 서구청
- **운영주체** |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
- **연락처** | 053-565-1058(신경남 사무국장)

 키워드
공동체정신, 도시재생, 골목정원, 지역브랜드

 달성토성마을 연평균 방문자 수
5,000 명

 문화예술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수
13~15 개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 수
15 명



주민들 스스로 조성한 골목정원 모습

슬럼화된 마을이 우수마을로! 마을을 살려낸 주민들의 힘

대구시 서구 비산2·3동 달성토성마을은 2017년 대구시 우수마을축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최우수상(‘골목정원’), 산림청의 ‘아름다운정원 콘테스트’에서 우리정원 분야 동상 수상에 빛나는 우수마을이다. 하지만 비산2·3동이 달성토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지어 살던 마을이었다. 이후 1980년대, 섬유 염색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배후 주거지가 되었으나 1990년대 섬유산업의 쇠퇴로 마을도 생기를 잃었다. 또한 국가문화재 사적 제62호인 달성토성과 인접하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개발이 막혀, 낡은 집과 미로처럼 좁은 골목은 수십 년 전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세월에 따라 낙후되었다.

젊은층이 빠져나가며 빈집이 늘고 폐가도 많아지면서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골목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했던지 성인 남자도 안 갈 정도였습니다. 범죄율도 높았고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초소를 건립하고 돌아가면서 그 초소에서 자율방범을 했겠습니까?”(이갑연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총무)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첫 사

업이라 시행착오가 많았다. 행정도, 주민도 어떻게 마을을 개선해야 할지 몰랐다. 사업의 결과 2014년 행복한날외골공방이 만들어졌지만,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 맞는 주민 4명이 골목정원 마중물 사업을 직접 실행하겠다고 나섰다. 하나둘 집안 화분을 골목에 내다 놓은 것이다.

“주민들이 뭐라도 해보자고 나섰어요. 골목이 너무 비좁아서 어차피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니 골목에 화분을 갖다 놓자고 했죠. 골목에 생기가 돌고 쓰레기 문제도 동시에 없앨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이갑연 총무)

혹여 도둑놈이 훔쳐갈까 처음엔 눈치만 보던 주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직접 화단을 만들고 분갈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집 앞 정원을 조성했다. 골목정원 1호가 2호, 3호로 퍼지면서 마을 전체로 확산됐다. 내 집 화분만이 아니라 앞집, 옆집 화분도 신경 쓰면서 주민들은 돈독한 사이가 됐다. 직접 땀 흘려 변화를 이뤄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주민의식도 키워나갔다.

그렇게 단 1년 만에 60가구가 넘는 주민들의 참여로 40개가 넘는 골목정원이 만들어졌고, 대구의 명소가 되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자 주민들은 마을해설사를 자처했고 주민 축제조직위원회를 꾸려 골목축제도 열었다. 그것이 바로 2016년 처음 시작된 후 매년 열리는 ‘달성토성마을 골목





다채로운 골목정원의 모습

축제'다. 매년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규모 축제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은 주민들의 다음 과정은 "이제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해볼까"였다.

주민들이 먼저 나서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행정에 건의하다

골목정원 다음 스텝을 고민한 결과가 '달성토성마을 다락방'이다. 2015년 골목정원과 골목축제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민공동체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필요로 했다. "주민들이 마을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설사 주민에게도, 또 찾아온 관광객에게도 마을의 기억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신경남 마을해설사 겸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사무국장)

주민들은 대구 서구청에 도시재생사업 변경을 건의하여 마을 거점공간 조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시기는 서구에서도 서구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 때였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담당과가 건축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되면서 주민과 행정의 협업관계가 형성되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때였다. 이런 흐름 속에 서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원래 달성토성 주변 5개 통에 작은 공방들을 지을 계획은 각각의 공간들을 한곳에 집중해 큰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공간 설계에도 주민이 참여했다. 주민들을 공간의 잠정적 운영주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공간을 설계하고 기획하게 한 결과,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공간조성 계획이

세워졌다. 그 결과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북카페,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방, 골목정원과 연계해 식물을 배울 수 있는 반려식물체험관, 마을해설사로 활동하는 주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간 등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어 지상 3층의 멋진 건물로 탄생했다.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 놓아도 그 공간을 운영할 사람이 없거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설계부터 주민들에게 맡긴 것입니다."(고미연 대구 서구청 도시재생 주무관)

시설 운영도 주민이 맡았다. 설계에 참여한 주민들은 달성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해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



화분들이 거울에 죽지 않도록 주민들이 제안하여 만든 실내 온실



1층의 다락방 카페



주민 사랑방처럼 쓰이는 야외 테라스



골목정원 사업이 관광객 5,000명 이상 찾는 골목축제로 이어지면서, 이제 필요한 건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했죠. 마을해설사로 일하는 주민도, 관광객들도 모일 수 있는 마을의 대표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신경남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사무국장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마을 장인' 및 '마을해설사'양성으로 마을경제 활성화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이 요즘 특히 집중하는 것은 마을사업이다. 마을장인 양성, 주민자립,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마을장인 양성 사업으로는 DIY목공장인, 골목정원원예장인, 다육아트장인, 수공예장인, 지수공예장인, 한지공예장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을 '장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려화 비율이 높은 마을의 특징과 관련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인데, 주름진 손으로 공예를 하는 모습이 장인 같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진짜 장인이 되리라는 염원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주민자립 프로그램은 달성토성마을과 다락방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골목정원투어와



식물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다락방 카페는 협동조합과 마을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한 주민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마을해설사 교육, 마을해설사 역량강화, 마을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한다. 아마추어 마을해설사 주민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 스피치, 발성교정, 발음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마을 바

마을 바리스타, 마을해설사, 마을 장인 등 다양한 마을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온 달성토성마을



주민들이 만든 달성토성마을 안내 책자들

리스타 수업을 수료한 주민은 다락방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다락방의 특징은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다락방 한곳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복한날외골공방, 주민센터, 노인회관, 6개의 경로당, 소극장, 마을도서관 등의 주변 공간들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 마을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에 있는 거점공간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달성토성마을 전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행복한날외골공방에서 골목정원원예장인 프로그램 초급 수업이 열리면 심화 수업은 다락방 2층 반려 식물체험관에서 열리는 식이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서 자수장인, 원예장인, 마을해설사 등으로 성장한 주민들은 마을을 알리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마을과 주민, 그리고 거점공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달성토성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이유다.

이러한 선순환 관계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60대 이상 노인들도 마을 바리스타나 마을해설사라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다. 또 장인양성 프로그램에서 만든 마을 장인들의 제품을 다락방이나 지역 축제에서 판매해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은 협동조합과 행정이 협업한 결과

다. 조합원 구성원의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아이디어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조합이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구청이 달성마을 주차장을 조합에 위탁운영으로 맡긴 것도 그 일환이다. 조합은 주차장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카페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충당한다. 달성토성마을 로고를 만들고, 캐릭터 화해 인형 제작에 나선 것도 행정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황두철 대구시 서구청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과 자주 토론하고 회의하는 자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정이 잘 듣고 그 의견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점점 더 많은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 역시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 도시재생과에 경관재생담당을 두어 골목정원 이름 간판, 마을

안내판 등의 시설 정비를 했고, 최근에는 주민의 성장을 북돋우고자 다락방 바로 옆 폐가를 정원미술관으로 개조해 정원예술작가 레지던시로 열었다. 이곳은 다락방 프로그램을 통해 원예에 조예가 깊어진 주민이나 골목정원에 적극 참여한 주민들이 개인 전시회를 여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필자가 갔던 날에는 권중만 가드너의 작품과 그의 정원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잘 가꿔진 주민의 작은 정원을 사진, 영상, 일지에 담아 공간에 표현해낸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마을에 대해 더 큰 자긍심과 공동체성을 느끼게 된다고. 골목정원 사업을 시작하여 범죄율 높고 낙후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축제를 만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발전시키고, 나아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장인, 해설사, 바리스타로 육성시켜 지역활성화를 이룬 달성토성마을 주민들. 첫 삽은 언제나 주민이 뜨고 묵묵히 그 뒤를 받쳐 준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지만 하다.



(왼쪽부터) 황두철 과장, 고미연 주무관, 신경남 사무국장, 이갑연 총무

특별 사례

반송 느티나무도서관

주인이 만들고,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들의 공간

Specification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57
- 규모 | 지상 4층, 지하 1층
 - ▶ 대지 108.9㎡, 건물 273.9㎡
- 사업 기간 | 2007.4.~10.(2007.10. 개관)
- 총사업비 | 4억 8,000만원
 - ▶ 주민 후원금 3억 8,000만원
 - ▶ 국비 1억원(문체부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 운영비 | 1억 300만원(시비 일부)
- 시설 소유 | 희망세상(비영리단체)
- 운영 주체 | 희망세상(비영리단체)
- 연락처 | 051-542-1590(김영미 관장)

키워드
풀뿌리조직, 시민자산화, 주민자율

주민후원금
3억 8,000만원

자원활동가
50여명

후원회원
530여명



주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만든 느티나무도서관

1960년대 철거민들이 정착해 살았던 가난한 마을, 반송.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돈만 벌면 언제든 이 동네를 떠나겠다고 말할 정도로 마을에 애정이 없었다. 그런 반송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을 세웠다. 이런 변화 뒤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희망세상'이 있었다.

주민들을 마을의 주체로! 반송을 변화시킨 풀뿌리 조직

희망세상의 전신인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1997년 만들어졌다. 반송에서 나고 자라 이사를 갔다가 곁을 떠나고 다시 반송으로 돌아온 고창권(희망세상 초대 회장) 씨는 20년 전과 변함없는 반송의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결혼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반송의 모습에 놀랐다고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희망세상의 전신인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김영미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희망세상은 반송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다. 마을의 노인과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봉사 모임인 나눔반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자녀교육반, 영어반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좋은 아버지 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졌다. 마을소식을 알리는 마을신문 <반송사람들>을 만들고 아이들의 공간인 놀이터를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벽화를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는 어린이날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날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반송마을 폐기물처리장 설립 반대운동을 펼쳐 폐기물처리장 설립도 막았

주민참여 선도사례

다. 이를 계기로 지역 유지들도 희망세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반송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지 10년. 희망세상과 반송마을 주민들은 그동안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건강한 마을문화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주민 모두가 하고 있었어요. 책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마을, 늘 가까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김혜정 전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벽돌한장 기금 쌓기 등 주민들의 모금이 이어지다

사실 희망세상은 2004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도서관은 반송2동 주공아파트 상가에 있는 희망세상 사무실 한쪽에 자리잡은 13평짜리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을 좀 더 번듯하고 제대로 만들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사, 삼성이 주최한 '희망의 작은도서관' 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난관이 생겼다. "원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게 임대한 곳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짓는 건 되냐고 물어보니까 짓는 건 된대요.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거죠."(김영미 관장)

그렇게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다양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1억을 기부해 줄 독지기를 찾을까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은 우리의 도서관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1만 명이 1만원씩 모으면 우리 모두의 도서관이지 않겠냐 싶더라고요."(김혜정 전 관장)

'우리 마을에 희망의 도서관을 만들어요'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 모금을 시작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들의 돼지저금통 모으기, 벽돌한장 기금쌓기, 희망의사다리운동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쳤다. 특히 '벽돌한장 기금쌓기'를 통해 애초 목표였던 1억원을 초과해 1억 6,000여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가족 수만큼 성금하신 분도 있고, 몇 달치 월급을 내주신 분도 있고, 목돈을 내고 싶은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서 몇 달씩 할부로 내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해주셨습니다.”(김영미 관장)

십시일반 모은 마을주민들의 후원금 3억 8,000만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1억 원까지 사업비 총 4억 8,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크기의 도서관을 2007년 10월 완공했다. 마을에 도서관을 짓기로 논의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주민의 삶과 복지를 고민하는 도서관 이상의 도서관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 같은 도서관이 되고 싶다는 느티나무도서관은 나무의 형태를 지녔다.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주민들의 바람과 작은 건물이라 특색 있게 설계하고 싶었다는 건축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느티나무도서관은 창문이 크고 많다. 반송마을 대부분의 집은 10평 남짓의 주택으로 나란히 이어져 있다. 그래서 집안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햇빛이 잘 드는 건물이었어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아이들이 뒹굴뒹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김혜정 전 관장) 건평 273.9㎡의 작은 평수의 건물이지만 도서관은 알차게 꾸며졌다. 지하층은 청년 모임 공간이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부터 3층은 도서관, 4층은 세미나실로 이용된다. 도서 대출 등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주민 모임과 활동 공간으로 이용된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드림터’를 비롯해 반송중 독서토론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를 비롯해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 연극반, 우쿨렐레모임, 책모임, 아빠모임, 육아 품앗이, 느티나무 책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도서관에서 이뤄진다. “마을 사람들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고 놓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김태화 사서의 설명처럼 반송 주민이라면 누구나 느티나무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인근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활동가 소모임인 ‘느티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나 그림책을 크게 만들어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큰그림책’은 느티나무도서관의 자랑이다. 반송마을의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신입생 책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서관을 통해 진행된다. 주민들은 느티나무도서관을 통해 마을로 나오게 되었다고



(왼쪽부터) 박은영 주무관, 김태화 사서, 김혜정 전 관장, 김영미 관장, 김현주 마을주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모습



도서관 내부

느티나무도서관 구성원들은 아이 혼자서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못할 텐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책의 대출을 얼마나 늘릴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를 고민하는 곳이 바로 느티나무도서관입니다.”(김혜정 전 관장)

청년세대 참여로 활기찬 현재진행형 생활SOC

느티나무도서관은 연간 5,300만원의 후원회비와 부산광역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금 5,000만원으로 운영된다. 민간 소유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박은영 부산시 교육협력과 주무관은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수는 인구 8만 명당 1관으로, 5만 명당 1관인 전국평균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 동네 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잘 운영되기 바란다”면서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느티나무도서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지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단체인 희망세상이라는 모 조직의 지원 덕분에 느티나무도서관은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큰 부침 없이 운영되어 왔다. 전국에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1세대 운영진 이후 2세대 운영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반해 이례적으로 느티나무도서관은 20~30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느티나무도서관을 통해 마을에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사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화 사서는 “주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은 전국에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유일하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해온 역량 있는 풀뿌리 조직이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생활SOC의 새로운 방향을 느티나무도서관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들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말한다. 본인도 그런 주민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는 김영미 관장은 “그동안 희망세상이 반송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활동들이 회원 위주의 활동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면서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는 도서관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2020년 한 해, 느티나무도서관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읽고 싶은 책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책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꾸러미 배달과 SNS를 통한 책 활동을 진행했다. 또 동네 보물놀이, 동네 시장 한 바퀴 돌기 등의 바깥 활동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긴급생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지원금 등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을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 동네 주민 600명에게 배포하고 일일이 설명하는 작업도 했다. “엄마와 아이 둘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시다. 아이는 혼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위험해서 그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2020년 생활SOC 공모전 우수사례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생활SOC!

- 13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
- 14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 15 넷제로(Net Zero) SOC 에너지마루
- 16 미로센터
- 17 거제청년센터 이룸
- 18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 1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020 생활SOC 공모전 우수사례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생활SOC!

대상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트윈(Tween)세대는 10대 청소년(Teenager)과 어린이 '사이'(between)에 낀 세대를 일컫는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12~16세)까지는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이 생기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도서관의 경직된 구성은 이들이 도서관을 멀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서관 안에 트윈세대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들만의 공간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길까? 이 질문을 출발점 삼아 만들어진 곳이 바로 2019년 12월 20일에 문을 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3층의 '우주로1216'이다. 우주로1216은 벤처기부펀드 씨프로그래프와 도서관문화재단 씨앗,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전주시와 힘을 합쳐 진행된 프로젝트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을 위해 트윈세대에 대한 조사 작업이 2019년 1~3월에 선행되었다. 1차 분석은 에세이, 사진, 일기 등을 활용한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로 트윈세대 53명을 분석했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40문항의 웹설문조사(408명 참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트윈세대들의 7가지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친구들 중 성향별로 12명을 선발해 서울 우수공간을 방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상상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1박2일간의 인사이트 &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진행했다. 설계 단계에서도 '나도 크리에이터' 파일럿 프로그램, 공간 워크숍, 2회의 집중 워크숍 등을 진행해 트윈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히 건축가와 함께 진행한 공간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들의 의견은 실제 공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집중 워크숍에서는 해당 공간에서 진행될 콘텐츠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경험을 하도록 하여 이후 운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2020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로 진행되었으며,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우수사례, 홍보영상 3개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전문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거쳐 총 19점을 선정했으며, 그중 생활SOC 우수사례 7건을 소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트윈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느슨하고 유연한 공간이 탄생했다. 우주로1216은 톡톡존(소통), 쿵쿵존(발산), 속속존(창작), 곰곰존(독서, 사색)이라는 4개의 경험 공간과 휴게 공간 냘냘존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인기 많은 공간은 속속존으로 3D펜이나 뜨개질을 하며 굿즈를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 제작실(속 스튜디오)에서 영상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편집도 할 수 있다. 쿵쿵존에는 철봉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언덕, 창가쪽 무대가 있고, 곰곰존은 책을 읽고 혼자만의 사색을 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작가와의 만남, 낭독회 등이 진행되는 곳으로도 쓰인다. 우주로1216에는 2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우주로1216 트

윈운영단이 있어 운영도 직접 맡고 있다. 이들은 컬렉션팀, 프로그램기획팀, 홍보팀으로 나누어 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팀별로 활동한다.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인 뜨개질 코너, 우주로 보물찾기, 싱잉라이브러리(악기연주, 공연), 신청곡 코너 등이 모두 이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들이라고 한다. 기획·설계부터 운영까지 트윈세대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맞춤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우주로1216, 미래의 시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공간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치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306(전주시립도서관 꽃심 3층)
연락처 | 063-230-1814(송지은 주무관)

최우수상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기피시설인 공설모자를 복지공간으로



경기도 양주시의 장애인복지타운은 인근 신도시 중심 지역과 가까운 삼송동 일원의 공설모자를 재개발해 지역 내 사회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양주시는 인구대비 약 5.3%가 장애인 인구에 해당한다.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수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양주시에는 그간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역의 긴급한 목소리 앞에 양주시는 삼송동의 공설모자를 주목했다. 공설모

자는 다수의 무연고 묘지가 방치된 곳으로, 예전부터 도시미관 저해와 우범화 가능성 때문에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유희부지였다. 그러나 삼송동은 인근 신도시 중심 지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주시는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기로 정책을 세웠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 40억원을 지원받는데 이어,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퍼스트'에서 장려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수월하게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는 먼저 조성된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어린이집, 삼송실내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2020년 12월에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총 6개 시설이 수평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원스톱 이용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사례로도 그 우수성이 돋보였다. 유희부지에 복지타운을 건설해 부지 매입 및 건물 건축비용으로 20억원을 절감했고, 기존 곰두리어린이집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 착안, 이를 보수하여 시각장애인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시설의 노후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 및 임대료(운영비) 연 1,200만원의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열리면 장애인 근로자 20명의 고용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각각의 시설을 따로따로 지을 경우 단일 용도로 시설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한곳에 모아 수평 복합화한 생활SOC로 조성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비롯한 재활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장애인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 등 교육·치료·직업·의료 기능 집적화가 가능해졌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로서 양주시 장애인복지타운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 | 양주시 삼송로129번길 139-18 일원
연락처 | 031-8082-5740(양경수 팀장)

우수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넷제로(Net Zero) SOC 에너지마루

자연 그대로를 환경교육장으로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 2020년 장마... 이 모든 자연재해의 뒤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에너지마루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강동구가 조성한 친환경 교육장이다.

2019년 6월, 강일동 능골근린공원(총면적 3만 1,464㎡)에 오픈했으며, 태양·바람·물·힘·바이오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5개 야외학습장과 어린이놀이시설인 미끄럼틀, 에너지

교육장, 에너지쉼터 등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전국 최초로 설치한 바닥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의 초대')이 있는데, 태양광 모듈을 통해 낮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밤에는 이용자 움직임에 따라 조명이 이동하는 스마트한 체험 시설이다. '태양의 초대'는 태양과 모듈의 만남, 태양과 인간의 만남, 태양에너지와 놀이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공고를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원래 에너지마루는 2016년 9월 고덕천에 처음 개장하여 친환경 교육장으로 쓰이다가 능골근린공원으로 이전 개장했다. 능골근린공원으로의 이전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소년스포츠센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체험 프로그램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에너지마루는 또한 사회적 비용절감 사례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서울시 부지인 고덕천에, 이후 관내 유희부지인 능골근린공원으로 부지를 정하면서 매입 및 건축 비용 약 1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태양광 설치 관련 특고금과 시에서 에코하우스를 무상 유치하는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활용, 10억원을 확보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였다.

또 대규모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건물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야외 체험시설 위주로 구성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빗물저금통, 태양광패널 등으로 100% 에너지를 자립 생산하고 있어, 현재까지 전기세 납부 0원을 기록하는 등 운영비 절감 효과도 크다.

개장 후 현재까지 17,000명이 방문했고, 780여 회의 교육이 이뤄진 에너지마루. 최근에는 환경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설사를 50명 양성하는 등 녹색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다. 관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한 에너지마루는 '슬기로운 생활SOC'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위치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736(능골근린공원)
연락처 | 02-3425-5384(이지우 주무관)

우수상

광주광역시 동구 미로센터

민간 워킹그룹의 참여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꿈꾸다



미로센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동구의 원도심 예술의 거리 내에 있다. 주민과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 앵커시설로 2019년 11월 1일 개관했다. 공방, 책방, 극장, 갤러리, 창작실, 교육체험 공간, 라운지와 옥상정원, 미로 가든 등 16개 시설이 3개 동에 조성되어 있으며, 40명의 입주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다.

미로센터는 공간 구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설계 및 자문 TF회의 4회, 공간 디자인 주민참여 워크숍 8회

등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과 예술인이 화합하는 공공공간으로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의 주민(예술가)들이 곧 지역문화 활성화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2019년 5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미로센터는 총 7차례의 '미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미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의 정기적 네트워킹 모임인 미로 라운드테이블은 미로센터 개소 후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보며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2020년 6월 15일 14개 민간 워킹그룹들을 포함한 '미로 자립·상생 민·관 거버넌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거버넌스 협약에 따라 미로센터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혼합형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로센터장과 운영기획팀장 등 행정 주체 3인이 포함된 직영운영조직과 14개 민간 워킹그룹이 함께 운영한다. 시설관리와 운영지원은 광주시 동구가 맡지만, 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은 14개 민간 워킹그룹이 담당한다. 14개 워킹그룹에는 국제예술교류 레지던시부터 그림, 장애인 예술교육, 지역자원 아카이빙, 소셜 디자인, 공공미술, 예술창업 키움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와 민간 워킹그룹은 사무공간도 함께 공유하여,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예술교육 외에도 전문예술인 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와 국제예술교류 워크숍, 국제예술교류 레지던시 사업 등 지역 가치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 포럼을 열어온 미로센터. 공공예술공간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나아가 문화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

연락처 | 062-608-2132(천혜원 팀장)

장려상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청년센터 이룸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소통과 교류의 공간



거제청년센터 이룸은 2020년 7월 1일 개소한 거제시 최초의 청년센터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마실살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 8,600만원과 실시시설계용역을 지원받아 농업기술센터 1층 창고 148㎡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공간이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거제의 청년인구는 7만 7,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무려 15.3%나 감소했

다. 거제시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청년들끼리의 소통과 교류, 작업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거제시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제시, 거제시의회,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가 함께하는 민-관-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19년 7월, LH가 추진하는 마실살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도 확보했다. 그해 12월에 거제시가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공간을 기획하기 위해 지역청년활동가 간담회, 지역대학생소통간담회,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개발 상담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LH가 지역대학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실시시설계용역을 맡기면서 자연스레 산학협력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정보검색대, 셀프 카페테리아, 토론공간, 세미나실, VR가상면접실 등을 갖춘 공간이 완성됐다. 공간이 개소되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도 늘어났다. 재능기부로 영어스터디를 하는가 하면, 청년창업가 원데이클래스, 청년농부 토크 콘서트 등이 꾸러졌다.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청년기획단 사업도 운영하며, 이들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창업 컨설팅이나 진로상담, 청년일자리 소개 등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거제시는 이룸의 개소를 통해 일터에서 살터로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유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센터 조성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청년활동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동아리 등 청년 거버넌스를 청년(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강화해 시설의 운영주체로 전환하고 '청년친화도시' 사업과 연계, 사회적 공동체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위치 |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21 1층

연락처 | 055-639-4104(김영진 주무관)

장려상

경기도 포천시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마을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만든
빈틈없는 돌봄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책상없는학교협동조합은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공모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3년째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미래형 돌봄교실은 경기도 교육청이 지역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노하우를 해당 사업에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교 예산(2020년 기준 4,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은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늘 열려 있다. 학교숙제와 기초학습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전래놀이, 미술, 독서, 창의과학, 멘토링, 예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 특성상 학원, 문화교육 시설이 없어 사교육, 또는 문화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예술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은 재능기부로 함께하는 다양한 마을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며 쉽고 놀이, 배움과 보육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이 확보된 마을 공간을 지역 돌봄교실로 활용하여 돌봄의 빈틈을 채우는 한편, 돌봄교실 관련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 특교금으로 지원받아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사회활동의 욕구가 높은 노인자원을 아이들 돌봄으로 연계하여, 생태체험, 절기 문화체험 및 5대 특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와 중·장년, 노인이 같이 성장하고 살피주는 생애학습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아, 교육문화 소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4

연락처 | 031-532-3515(정미정 대표)

장려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개념 보육복지 인프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은 1978년 지어진 옛 용산구청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2017년 말 개관했다. 꿈나무종합타운 조성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민참여 추진단이 구성되어 사업기획부터 추진단계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고민했다. 조사 결과, 영유아와 부모 문화공간 40.6%, 도서관 확대 32.3%, 체험학습 활동 27.7%, 청소년 학습지도 24.3%, 문화취미 활동 확대 22.9% 등 다양한 욕구가 드러났다.

이러한 주민들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간은 ▲본관(지하 1층, 지상 5층) ▲제1별관(지상 3층) ▲제2별관 꿈나무어린이집(지상 2층) 등 3개 동으로 완성됐다.

종합타운 본관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장난감나라, 원어민 외국어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꿈나무도서관, 꿈나무극장 등이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음악, 미술,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문화 시설이다. 장난감나라는 영유아를 위해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준다. 원어민 외국어교실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6개 국어 강좌를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관으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도 갖췄다. 장서 3만권을 갖춘 꿈나무도서관은 자료마당, 책다락, 영유아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꿈나무극장은 175석 규모 전문 공연장으로 정기적으로 영화를 무료 상영하고 있다.

본관 뒤편 종합타운 제1별관은 전통 한옥식 서당, 청소년 학습실, 4차산업 학습센터를 갖췄으며, 제2별관 어린이집은 구립 꿈나무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일 평균 방문자가 2,700명에 달할 정도로 구민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높다. 해가 갈수록 지역을 대표하는 보육, 교육, 문화 인프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29

연락처 | 02-707-0704(김경용 관장)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2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발행일 2020년 11월30일

발행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발행인 구윤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홈페이지 www.lifesoc.go.kr

대표전화 044-200-2906

기획 생활SOC추진단

제작 소소북스